

2025년

4월~6월

안식일 성경 교과

장년부



제 2부

요한복음의 교훈

선한 목자께서는 자신의 보살핌을 받는 양 떼를
부드럽게 인도하고 보호하십니다.

목 차

1. 예수님은 생명의 떡.....	5
2. 갈릴리에서의 위기.....	10
3. 초막절의 예수님.....	15
4. 이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은 없었노라.....	20
5.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26
6. 예수님은 세상의 빛.....	31
7. 거부당한 빛인가, 반사된 빛인가?.....	36
8. 예수님과 아브라함.....	41
9. 예수님과 눈먼 사람.....	47
10. 영적인 실명에 직면함.....	52
11. 예수님은 선한 목자.....	57
12. 예수님과 나사로.....	62
13. 부활과 생명.....	67

안식일 성경교과

매일의 양식인 안식일 성경 교과는 다른 부가적인 주석을 배제하고 오직 성경과 예언의 신만을 기초로 하였다. 인용문들은 가능한 간결하면서도 직접적인 사상을 전달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어떤 경우에 사용된 괄호[]는 내용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문맥의 전후 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삽입되었다. 아울러 모든 인용문의 페이지는 영문 페이지임을 밝혀 두는 바이다.

편 저 : 제칠일 재림교 개혁운동 대총회

발 행 : 제칠일 재림교 개혁운동/ 경북 김천시 구성면 남김천대로 2983-23(송죽 2리 32번지)

발행인 : 제칠일 재림교 개혁운동 안식일 학교부

인 쇄 : 의성사

전 화 : 054) 435-1843

팩 스 : 054) 434-4521

(농 협) 351-0513-4988-73 (예금주) 사단법인 제칠일 재림교 개혁운동

(우체국) 700377-01-005190 (예금주) 제칠일 재림교 개혁운동

SDA개혁운동 한국 합회 홈페이지 주소 : www.sdarm.or.kr

(상기 주소나 오른쪽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성경교과와 진리의 기둥과 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칠일재림교개혁운동

서문

요한복음의 기록은 다른 세 복음서(공관복음서라고 함)보다 늦지만 여전히 1세기 안에 있다. 19세기에 성경 비평가들은 그것이 기원후 150년 이전에 쓰여졌다는 것을 부인하려고 시도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사도 요한이 저자라는 사실을 반박하려고 했다. 비평가들은 또한 그것이 영지주의 철학을 반영하기 때문에 영지주의가 신앙에 심각한 위협이 되기 전에 쓰여졌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영지주의는 지식이 신앙보다 구원의 열쇠라고 주장한 초기 종파의 철학적, 종교적 체계였다). 그런 왜곡된 비난은 오랫동안 반박되어 왔다.

반대로, 외부 증거는 네 번째 복음서의 존재와 서기 115년 초에 이미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한 증거 중 하나는 요한복음의 몇 구절(18: 31~33, 37, 38)이 실린 작은 파피루스 조각의 발견을 통해 나왔다. 이 조각은 라이랜즈 파피루스로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52쪽으로 지정되었었고, 고문서학적으로 서기 125년경으로 추정된다. 2세기 초 이집트에서 발견된 이 조각은 네 번째 복음서의 초기 및 광범위한 보급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간주된다. 유명한 신약 학자 아돌프 다이스만은 다음과 같이 확언한다.

“요한복음서의 늦은 기원에 대한 수많은 가설은 온실 식물처럼 금세 시들어 버릴 것이다. 우리는 라이랜즈 파피루스에서 요한복음이 2세기 전반에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본이 이미 이집트에 도착했다는 확실한 문서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복음의 기원은 훨씬 더 이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독일 알게마이네 차이통, 1935.12.3.

요한의 글은 초기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특정한 목적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시대를 거쳐 가장 다양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에게 영적 인도, 도움, 격려를 가져다주었다.

“나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새 빛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빛은 진리의 말씀에서 비취는 보배로운 옛 빛이라고 대답하였다.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이를 빛의 가냘픈 광선만을 가지고 있다. 우리들은 주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빛을 최선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가된 빛을 받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들에게 이미 비추어진 빛 가운데 행하고 있지 못하다.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을 가리켜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심원한 원칙의 광대한 넓이를 깨닫고 있지 못하며 율법의 거룩한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진리의 교사들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산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침에 있어서 무엇을 가르쳐야 할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402.

이 복음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세계 대총회 안식일학교부

러시아 프로호로프카 교회 재건을 위한 첫째 안식일 연금

러시아는 면적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로, 6,612,073.2제곱마일(17,125,191km²)에 달하는 면적에 1억 4,70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180개 이상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이 광대한 영토에 살고 있으며, 그들은 차례로 다양한 종교적 신념을 고백한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러시아 정교회(41.1%)이고, 그 다음으로 다른 기독교 신앙(6.3%), 이슬람(6.5%), 신이교도와 텡그리스트(1.2%), 불교(1.2%), 명목상의 신자(25.2%), 무신론자(13%)이고, 나머지는 어떤 종교도 믿지 않는다.

SDA 개혁운동이 시작된 이래로, 영원한 복음의 기별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곳에 전파되었다. 많은 신자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았고, 어떤 이들은 목숨을 바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구세주를 증거했다.

1990년대 말에 한 전도사가 아내와 함께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해 러시아 중부 지역으로 이사했다. 그들의 노력과 기도의 결과로 신자 그룹이 조직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모임과 예배를 위한 장소가 없었다. 마침내 2006년에 그들은 벨고로드 주 프로호롭스키 지구의 도시 행정 중심지인 프로호롭카에 있는 한 조각의 땅에 있는 작은 집을 찾았다. 이 지역은 쿠르스크 시 남동쪽에 있는 프쇼르 강을 따라 곡물, 사탕무, 해바라기, 과일을 생산하는 농업 지역으로, 방대한 철광석 매장지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많은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이 집을 사는 것을 축복하셨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이 지역의 사역은 계속 성장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앉을 수 없을 만큼 비좁아졌다. 몇 년 전, 우리는 당국으로부터 새로운 건물을 짓는 허가를 받고 예배소를 짓기 시작했다. 형제들은 기부금을 내고 열심히 일했지만, 이 계획을 마치려면 주님을 사랑하는 전 세계 사람들의 관대한 도움이 필요하다. 이 계획을 완료하면 이웃 지역에서 복음 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구원의 마지막 기별을 전파하는 빛의 등대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 지역에서 현대 진리의 성공을 도울 준비가 된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기를 바란다!



-프로호로프카 교회와 러시아 연합회 형제들로부터

예수님은 생명의 떡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요 6:35)

참조할 연구교재: 산상보훈, 18~21.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붙잡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것이다.” -성경주석[화이트주석] 5권, 1135.

첫째 날(일요일)

3월 30일

1. 야심 찬 열심

가. 보리떡의 기적 이후 많은 사람들이 어떤 확신을 갖게 되었는가? 요 6:14. 그들은 무엇을 하기를 간절히 원했는가? 요 6:15[상단]

“종일토록 확신은 더욱 강하여졌다. 그 최고의 행위는 오래 기다리던 구원자가 그들 사이에 계시다는 보증이었다. 백성들의 소망은 점점 부풀어 올랐다. 이분이야말로 유대를 지상의 낙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실 바로 그분이시다. 그는 온갖 소망을 만족시켜 줄 수 있다. 그는 증오하는 로마의 세력을 부술 수 있다.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수 있다. 그는 전투에서 부상당한 병사들을 치료하실 수 있다. 그는 전군에 식량을 공급하실 수 있다. 그는 국가들을 정복하여 오랫동안 추구하여 왔던 권세를 이스라엘에게 돌릴 수 있다.

백성들은 열광적으로 당장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한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의를 이끄시거나 존경을 얻고자 조금도 노력하지 않으시는 것을 본다. 이 점에 있어서 예수님은 제사장들이나 관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결코 다윗의 보좌를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으실지도 모른다고 걱정한다. 그들은 의논한 결과 예수님을 강제로 모셔 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언하자고 의견을 모은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다윗의 보좌를 물려받을 정당한 분이라고 선동하는 데 있어서 무리들과 합세한다. 예수님께서 이런 명예를 거절하시는 이유는 그가 겸손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백성들로 저희 구원자를 높이도록 하자. 거만한 제사장과 관원들로 하나님의 권위를 입으신 분을 공경하지 않을 수 없게 하자.” -시대의 소망, 377, 378.

2. 잘못된 열심을 진정시킴

가. 예수님께서서는 무리와 제자들이 그분을 지상의 왕좌에 앉히려는 계획을 실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요 6:15.

“[제자들과 무리는] 그들은 저희의 목적을 추진 시키기 위하여 열심으로 계획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아셨으며 또 그들은 알 수 없었지만 이러한 운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아신다. 지금도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노리고 있다. 그들은 그가 백성들을 그들에게서 떠나가게 한다고 예수님을 비난한다. 예수님을 왕위에 추대하려는 노력에 폭력과 폭동이 뒤따를 것이며, 그렇게 되면 영적 왕국의 사업은 방해받을 것이다. 이 운동은 지체 없이 저지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불러 그분이 백성들을 해산 시키는 동안 배를 타고 즉시 가버나움에 돌아가라고 명령하신다.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기가 이번처럼 불가능하게 보인 적은 없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왕위에 앉히려는 대중 운동을 오랫동안 원해 왔었다. 이 모든 열정이 허지로 돌아간다는 것을 생각하니 제자들은 견딜 수가 없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모여든 군중들은 새 선지자를 보기를 갈망하였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 시기가 저희 사랑하는 선생을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히는 데 황금같이 귀한 기회처럼 보였다. 이 새로운 야심에 불타는 그들에게 있어서 저희만 떠나가고 예수님을 홀로 그 황량한 해변에 남겨 두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그들은 그 계획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향하여 전에 결코 취하지 않으셨던 위엄으로써 말씀하셨다. 그들은 더 이상 반대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것을 알고 잠잠히 바다를 향하여 돌아섰다.” -시대의 소망, 378.

나. 기적이 있는 다음 날, 무리는 무엇을 했는가? 요 6:22~25.

“보리떡의 이적에 대한 소식은 원근에 퍼져서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예수를 보기 위하여 뱃새다로 모여 들었다. 무수한 사람들이 육로로 혹은 바다를 건너 찾아 왔다. 전날 밤에 예수님을 떠나갔던 사람들이 아직도 그 곳에서 예수님을 뵈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돌아왔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건너편으로 실어다 줄 수 있는 배가 거기에는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찾아보았으나 헛수고였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찾으면서 가버나움으로 돌아갔다.

그 동안에 예수님께서서는 불과 하루 만에 게네사렛에 돌아오셨다. 예수님께서서 상륙하셨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님께서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 채로 메고 나아’(막 6:55)왔다.” -시대의 소망, 383, 384.

3. 보다 나은 목적과 거룩한 도움

가. 예수님께서서는 무리에게 어떤 솔직하면서도 사려깊은 기별을 주셨는가? 요 6:26, 27.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고 심하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어떤 가치 있는 동기에서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떡을 얻어먹고 배가 부른 때문에 예수님께 붙음으로써 현세의 이익을 좀 더 얻기를 바랐던 것이다. 구주께서는 그들에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분부하셨다. 단지 물질적인 유익만을 구하지 말라. 금생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을 첫째의 노력으로 삼지 말고 영적 양식, 곧 영생하도록 있는 그 지혜 얻기를 힘쓰라.” -시대의 소망, 384, 385.

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일에 관하여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했는가? 요 6:28. 주님께서 주신 대답을 설명하라. 요 6:29.

“잠깐 동안 청중들의 관심이 일깨워 졌다.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하고 부르짖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많은 괴로운 일들을 실행하여왔다. 그들은 더 큰 공로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계율이 있다면 어느 것이든지 듣고자 하였다. 그들의 질문의 뜻은 곧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행할까요?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는 어떤 값을 치러야 합니까? 하는 것이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었다. 하늘의 값은 예수님이다. 하늘에 들어가는 길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요 1:29)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이다.” -시대의 소망, 385.

“회개는 자신에게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할 때, 선행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산상보훈, 87.

“주님께서 이루어져야 할 진지한 사업이 있음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 ...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을 그분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들은 홀로 일하도록 버려지지 않는다. 천사들이 그들의 조력자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도우시는 분이시다.” -교회증언 8권, 18.

4. 하늘의 떡

가. 유대인들은 어떤 표적을 원했고 어떤 역사적 사실을 언급했는가? 요 6:30, 31. 예수님께서서는 하늘의 떡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요 6:32, 33.

“유대인들은 모세를 만나를 주신 자로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도구에 찬양을 돌리고 그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은 잊어버렸다. 그들의 조상들은 모세에 대하여 불평하고 그의 거룩한 사명을 의심하고 부인하였다. 그와 같은 정신으로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기별을 그들에게 전하신 분을 거절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만나를 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서 계시었다. 히브리인들을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떡으로 날마다 그들을 먹이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었다. 그 양식은 하늘에서 오신 참 떡의 한 표상이었다. 참된 만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충만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력을 주는 성령이었다.” -시대의 소망, 385, 386.

나. 그들은 마음을 단지 자연스럽고 물질적인 떡에만 고정시키고 어떤 요청을 했으며, 주님은 무엇을 설명하셨는가? 요 6:34~36.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신 표상은 유대인들이 잘 아는 것이었다. 모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신 8:3; 렘 15:16)이라고 기록하였다. 랍비들도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영적 의미로 율법을 연구하고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었으며 메시야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다 먹여 주실 것이라고 흔히 말하고 있었다.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보리떡의 이적 가운데 있는 깊은 영적 교훈을 명백히 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회당에서 이 교훈을 당신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공개하시려고 힘쓰셨다. 그들이 만일 성경을 이해했었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뜻을 이해하였을 것이다. 바로 그 전날에 기진하고 피곤하였던 큰 무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떡을 먹었던 것이다. 저희가 그 떡을 먹음으로 육체적인 힘과 원기 회복을 얻은 것처럼 영생에 이르는 영적 힘을 그리스도에게서 얻을 수 있을 것이었다.” -시대의 소망, 386.

5. 부활과 영생

가.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두 가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약속은 무엇이며, 이것이 어떻게 모든 죄인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는가? 요 6:37~40.

“예수님께서서는 믿음으로 자기를 영접한 자는 다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는 바 될 수 없다.” -시대의 소망, 386, 387.

“그대는 자기 자신을 개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도 될 만큼 충분히 선한사람이 될 때까지 그리스도께 나갈 수 없다고 속삭이는 원수(마귀)의 말을 듣지 말라. 만일 그대가 그 때까지 기다린다면 그대는 결코 그리스도께 나갈 수 없을 것이다. 사단이 그대의 더러운 옷(품성)을 가리키며 그런 말을 할 때에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요 6:37)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암송하라. 원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버릴 수 있다고 말하라. 다음의 다윗의 기도가 그대의 기도가 되게 하라.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시 51:7)

일어나서 그대의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그는 멀리까지 나와서 그대를 영접하실 것이다. 만일 그대가 회개하고 그분을 향해 한 걸음만 내디딘다해도 그분은 재빨리 무한하신 사랑의 팔로 그대를 안아 영접하실 것이다. 그분의 귀는 통회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듣기 위해 열려 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생각이 싹트는 그 순간에 그분은 그것을 아신다. 기도가 아무리 더듬거리고 눈물을 아무리 은밀하게 흘릴지라도 그분은 아시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마중 나가지 아니하시는 때는 없다. 기도가 입술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마음의 소원이 알려지기도 전에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은혜가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를 만나기 위하여 나온다.” -실물교훈, 206.

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무엇이려 수군거렸으며,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을 반복하셨는가? 요 6:41~51.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8:57

1. 떡의 기적 이후,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무엇을 하려고 계획했는가?
2.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의 주요 관심사를 설명하라.
3. 요한복음 6:29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설명하라.
4. 그리스도께서는 영적 삶의 근원을 묘사하기 위해 어떤 예를 사용하셨는가?
5.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편견을 어떻게 드러냈는가?

갈릴리에서의 위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요 6:53).

참조할 연구교재: 교회증언 5권, 573~580.

“살아 있는 유일한 믿음은,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것과 동화되어 생명의 한 부분이 되고 생애와 행동의 동기가 되게 하는 믿음이다.” -교회증언 5권, 576.

첫째 날(일요일)

4월 6일

1. 그리스도의 살과 피 속에 있는 생명

가. 그리스도의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요 6:52. 그분은 자신의 살과 피에 관해 어떻게 설명하셨는가? 요 6:53~55.

“랍비들은 성을 내면서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고 부르짖었다. 그들은 마치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삽나이까’(요 3:4)라고 물었을 때 그리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체하였다. 그들은 어느 정도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였으나 그것을 기꺼이 시인하려고 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말씀을 곡해함으로써 그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편견을 품게 되기를 원하였다.” -시대의 소망, 389.

나. 하나님의 아들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 6:56, 57; 요일 3:24; 5:12.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그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그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그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거기서 깊은 감명을 받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음식이 신체에 영향을 주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에 영향을 끼치셔야만 한다.” -시대의 소망, 389.

2. 하나님의 말씀

가. 예수님께서서는 어떤 추가 설명을 통해 자신의 말씀의 의미를 매우 명확하게 하셨는가? 요 6:63.

“음식은 우리가 그것을 먹지 않는 한 또는 그것이 우리 신체의 한 부분을 구성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끼칠 수 없다. 그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알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도 없다. 이론적 지식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다. 그리스도를 먹고 그를 마음에 받아들여 그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야 한다.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가 우리의 생애에 동화되어야 한다.” -시대의 소망, 389.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의 말씀 가운데 있다.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시고 사귀를 내어 쫓으신 것은 그의 말씀으로 하신 것이었으며, 말씀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셨으며 사람들은 그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증언하였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교사들을 통하여 옛적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셨다. 온 성경은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이며 구주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믿음을 말씀위에 고정시키기를 원하셨다. 육체로 계신 예수님께서 물러가실 때 그 말씀은 그들의 능력의 원천이 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들의 주와 같이 그들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마 4:4)였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음식에 의하여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생명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된다. 그리고 사람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야 한다. 자양분을 위하여 스스로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우리 각자를 위하여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단지 다른 사람의 지식을 중개로 하여서만 말씀을 얻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깊은 주의를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여야 한다. 우리는 한 구절을 취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구절 가운데 넣어 주신 사상을 확인하는 일에 정신을 집중시켜야 한다. 우리는 그 사상이 우리의 것이 되어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알 때까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 -시대의 소망, 389, 390.

나.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경험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렘 15:16.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의지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한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살과 피이다. 우리는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셔야 한다. 이것은 그분의 영적 속성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교회증언 6권, 51, 52.

3. 어린 교회의 위기

가.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분의 제자들 사이에서 어떤 위기를 불러일으켰는가?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경고가 되는가? 요 6:60, 61, 65, 66.

“그 시험은 너무나 컸다.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던 자들의 열정은 식어갔다. 그들은 회당에서 하신 이 설교가 저희의 눈을 뜨게 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솔직한 고백이요 또한 그와 더 붙어 관계를 맺는다 하여도 지상의 보상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행하시는 능력을 환영하였다. 그들은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열망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자아 희생의 생애에 동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묘한 영적 왕국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전에 예수님을 찾았던 성실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원하지 않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만일 그분의 권능과 세력을 로마로부터 자유를 획득하는데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을 것이었다.

진리의 말씀에 의하여 쪼그라드는 알곡과 분리되고 있었다. 저들은 너무나 허영심이 많고 독선적이어서 견책을 받을 수가 없었고 겸비의 생애를 감수하기에는 너무나 세상을 사랑하였으므로 대부분 예수님에게서 떠나갔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와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이 제자들이 시험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시험을 받고 있다. 사람들은 진리가 마음속에 들어올 때에 저희 생애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자신에게 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도 극기의 사업을 기꺼이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죄가 발각될 때 그들은 화를 낸다. 그 제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고 투덜거리면서 예수님을 떠난 것처럼 그들도 성을 내면서 떠나간다.” -시대의 소망, 391, 392.

나. 제자들이 그분을 떠난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열두 제자에게 무엇을 물으셨는가? 요 6:67. 오늘날 우리는 베드로의 현명한 대답을 어떻게 따라할 수 있는가? 요 6:68, 69.

“선하고 악한 평판을 뚫고서, 흑암을 뚫고서, 사단의 대리자들이 나타내는 그 모든 적대 행위를 뚫고서, 의의 태양께서는 악을 찾고, 죄를 제어하고,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들의 심령을 소성케 하면서 조용하게 빛을 비추신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285.

4. 제자에서 공공연한 적대자로

가.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선 사람들에게 대해 일반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요일 2:19. 불만을 품은 제자들은 어떤 실망스러운 입장을 취했는가?

“이런 불만을 품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섰을 때에 한 다른 정신이 그들을 지배하였다. 한때는 그토록 흥미를 느꼈던 예수님에게서 그들은 아무런 매력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원수들을 찾아냈으니 이는 저희가 그 원수들의 정신과 사업에 일치하였던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릇 해석하고 그 진술을 위증(僞證)하며 그 동기를 비난하였다.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재료는 무엇이나 다 수집함으로써 저희의 행동을 지지하였다. 이런 거짓 소문으로 말미암아 분노가 크게 격발 되었으므로 예수님의 생명은 위태롭게 되었다.” -시대의 소망, 392, 393.

나. 육적인 생각을 가진 청중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롬 16:17, 18.

“칭찬과 아침은 저희 귀를 즐겁게 할 것이나 진리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들은 진리를 들을 수 없다. 군중이 따르고 무리들을 먹여 주고 또 개선의 함성이 들릴 때에는 그들의 음성이 찬양으로 우렁차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살피심이 죄를 드러내고 그들에게 그 죄에서 떠나라고 명령할 때 그들은 진리에 등을 돌리고 예수님과 더 이상 동행하지 않는다.” -시대의 소망, 392.

다.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 외에 누가 그분의 적들과 내적으로 연합했는가? 그리고 이러한 반 쪽 마음의 충성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요 6:70, 71.

“한 회당에서 하신 생명의 떡에 관한 그리스도의 강론은 유다의 인생에 전환점이 되었다. ...

그는 그리스도께서는 세속적 유익보다 오히려 영적 유익을 제공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스스로 선견지명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은 아무런 명예도 갖지 못할 것이며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높은 지위도 주지 못할 것이 뻔하다고 생각하였다. 유다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너무 가까이 밀착되지 않게 해서 원할 때는 언제든지 떨어져 나올 수 있게 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거리를 두고 지켜보기로 했고 실제로 그렇게 지켜보았다.

그 때부터 유다는 의심을 불러일으켜 제자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주장을 반대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논법을 되풀이하면서 논쟁을 끌어들이고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유다는 복음 사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크고 작은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표면상의 장애물들은 복음의 진실성에 불리한 증거라고 해석하였다.” -시대의 소망, 719.

5. 배신자를 식별함

가. 유다가 취한 특성을 설명하라. 요 12:4~6; 잠 3:32.

“그[유다]는 그리스도께서 제시하고 계시는 진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성경절을 소개하고자 했다. 그것과 상관이 없는 이러한 성경절들은 제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으며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밀려오는 낙담을 증가시켰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을 성실하게 보이는 방법으로 이 모든 일을 해나갔다.” -시대의 소망, 719.

나. 갈릴리에서의 이 위기와 같은 경우에도 우리의 종교적 경험에서 종종 어떤 약속이 입증되는가? 롬 8:28.

“예수님께서 그분의 많은 제자들이 돌아선 원인이 된 시험하는 진리를 제시하셨을 때에 그는 그분의 말씀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을 아셨다. 그러나 그는 성취하실 자비의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 예수님께서 시험이 올 때에 그분의 사랑하는 제자 하나하나가 심한 시련을 당할 것을 미리 보셨다.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고뇌, 배신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등은 그들에게 가장 쓰라린 시련이 될 것이었다. 시험을 미리 주지 않으셨다면 단순히 이기적인 동기에서 움직이던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과 관련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었다. 저희의 주님이 심판정에서 선고를 받을 때, 예수님을 저들의 왕으로 환영하던 군중이 그를 향하여 노성을 발하고 욕설할 때, 조롱하는 군중이 ‘저를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하고 외칠 때, 다시 말하면 저희의 세속적인 야심이 실망을 당하였을 때에 이 이기주의자들이 예수님께 대한 저희의 충성을 포기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가장 크게 바라던 희망이 소멸됨으로써 슬퍼하고 실망한 제자들에게 가일층 쓰라리고 마음 괴롭히는 슬픔을 안겨 줄 것이었다. 그 어두운 시기에 예수님께서 돌아선 자들의 모본이 다른 사람들까지 데려갔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임재하심으로 그분의 참된 제자들의 믿음을 여전히 북돋아 줄 수 있을 동안에 이 위기를 일으키셨던 것이다.” -시대의 소망, 394.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9:03

1. 우리는 어떻게 “인자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실” 수 있는가?
2.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3. 어떤 사람들은 왜 그리스도의 말씀에 불쾌감을 느꼈는가?
4. 그들은 그 후에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경고가 되는가?
5. 그 후 유다의 영적 상태와 그 영향을 설명하라.

초막절의 예수님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러라”(눅 4:32)

참조할 연구교재: 산상보훈, 31~35.

“예수님께서서는 영혼의 필요를 아셨다. 허식과 부와 명예는 심령을 만족시킬 수 없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올 것이라’ 빈부 귀천 누구를 막론하고 다 환영을 받는다. 예수께서는 마음에 무거운 짐진 자를 구원하시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낙담하는 자에게 희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시대의 소망, 454.

첫째 날(일요일)

4월 13일

1. 예수님의 가정생활

가.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집에서 어떤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셨는가? 요 7:5.

“예수님께서서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분의 품성을 형성함에 있어서 스스로 행동하기 시작하였으며, 자기 부모에게 대한 존경과 사랑조차도 그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서 돌이키게 할 수 없었다. 그가 가족들의 관습과 다르게 취하신 모든 행동의 이유는 곧 ‘기록하였으되’라는 말씀이었다. 그러나 랍비의 영향은 그의 생애를 괴롭게 만들었다. 그는 그의 소년 시대에서조차도 침묵과 끈기있는 인내의 어려운 공과를 배워야 하였다.

요셉의 아들들인 예수님의 형제들은 랍비들의 편을 들었다. 그들은 유전도 마치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유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사람의 교훈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게 간주했으며 거짓과 참 것을 분별하는 예수님의 명철한 식별력에 대하여 몹시 화가 났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의 엄격한 순종을 그들은 완고하다고 비난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랍비에게 대답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나타내신 지식과 지혜에 대하여 놀랐다. 그들은 그가 박사들에게서 교훈을 받은 일이 없음을 알고 있었으나 그가 그들에게 교사가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그의 교육이 그들의 교육보다 더욱 고상한 종류의 교육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생명나무, 곧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식의 근원과 접촉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시대의 소망, 86.

2. 요셉의 아들들

가. 그리스도의 형제들은 연례의 초막절을 앞두고 그에게 어떤 제안을 했는가? 요 7:3, 4.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가 나라의 대인들과 학자들과 불화하는 것은 실수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그들은 이 사람들이 옳은 것이 틀림없으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적대적인 관계에 서심으로 과오를 범하였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결백한 생애를 목격해 왔었다. 그들은 그 제자의 반열에는 들지 못하였을지라도 그의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갈릴리에서의 그의 인기는 그들의 야심을 만족하게 하였으며, 그들은 아직도 그가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바로 그분임을 바리새인들로 깨닫게 해 줄 그의 권능의 증거를 나타내시기를 희망하였다. 그들은 자랑스런 만족감을 가지고 그가 만일 메시아라면, 그가 만일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하는 생각을 가졌다.

그들은 이 일이 아주 걱정스러워서 그리스도를 예루살렘에 가도록 재촉하였다. 그들은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만일 이 일을 구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말하였다. ‘만일’이란 말이 의심과 불신을 표시하였다. 그들은 그가 비겁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였다. 자신이 메시아란 것을 안다면 왜 이처럼 그는 이상하게 사양하고 활동하지 않는가? 만약 그가 참으로 그와 같은 권능을 가졌다면 왜 담대히 예루살렘에 가서 그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가? 왜 갈릴리에서 그에 관하여 알려진 바와 같은 놀라운 일을 예루살렘에서는 행하지 않는가? 격리된 지방에 숨어서 무식한 농부와 어부들을 위해서만 그대의 능한 일들을 행할 것이 아니라 수도(首都)로 가서 제사장과 관원들의 지지를 받고 새로운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민족을 연합시키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시대의 소망, 450.

나. 온유한 사람들이 항상 직면해 온 문제를 설명하라. 시 86:14.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남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야망을 가진 자들의 마음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이기적인 동기로 말하였다. 이 정신은 세계를 지배하는 정신이었다. 현세의 보좌를 구하는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 된다고 선언하셨으므로 그들의 감정은 상했다. 그들은 것처럼 많은 제자들이 그를 버릴 때에 크게 실망하였다. 그들은 그의 사업이 나타낸 바 그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십자가를 회피하기 위하여 그에게서 돌아섰다.” -시대의 소망, 451.

3. 예수님에 대한 논쟁

가. 예수님에 대해 어떤 모순된 의견이 제기되었는가? 요 7:11, 12.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기별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인들이 흩어져 사는 곳이면 어디에나 다 전해졌었다. 그래서 그가 여러 달 동안 명절들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그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지 않았다. 세계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리라는 희망으로 장막절 축제(祝祭)에 나왔다. 명절이 시작될 때 많은 사람들은 그에 관하여 물었다. 바리새인과 관원들까지도 그를 정죄할 기회를 얻기 위하여 그가 오기를 기다렸다. 저들은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근심스럽게 물었지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그분에 관한 것이었다. 제사장과 관원들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 사람도 그를 메시아라고 고백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곳에서나 그에 관하여 조용하면서도 열렬한 토론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로 옹호한 반면, 다른 사람들은 그를 백성을 기만하는 자라고 비난하였다.” -시대의 소망, 451, 452.

나.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에 대한 모순된 의견을 어떻게 잠재우셨는가? 요 7:14~18; 눅 4:32.

“축제가 한창 무르익고 그분에 대한 흥분이 절정에 달하였을 때 그는 성전 마당의 대중 앞에 나타나셨다. 예수님께서 축제에 참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는 제사장과 관원들의 권세 앞에 자신을 감히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라는 주장들이 나돌았었다. 그가 나타나시자 모든 사람들은 놀랐다. 모든 사람의 음성은 잠잠하여졌다. 그의 생명을 취하려고 갈급하는 세도 있는 원수들 앞에서 취하시는 그의 태도의 위엄과 용기를 보자 모든 사람은 이같이 여겼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서는 많은 무리의 주목을 끄는 한 가운데 서서 전에는 아무도 해본 일이 없는 그런 훌륭한 설교를 그들에게 하셨다. 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율법과 제도에 관한 지식, 제사 제도와 선지자의 교훈에 대한 그분의 지식이 제사장과 랍비들의 지식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그는 형식주의와 유전의 장벽을 무너뜨리셨다. 미래의 생애의 전경이 그의 앞에 펼쳐진 것처럼 보였다. 마치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본 것처럼 절대적인 권위로 땅의 일과 하늘의 일, 인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의 말씀은 매우 명료하고 수긍시키는 힘이 있었다. 가버나움에서처럼 백성들은 다시 한 번 그의 가르침에 놀랐는데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눅 4:32)었기 때문이었다. ... 모든 사람들은 율법과 예언에 관한 그의 지식에 놀랐다.” -시대의 소망, 452, 453.

4. 기록하신 분에 대한 증오

가. 예수님께서서는 랍비들에게서 무엇을 알아차리셨고, 그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셨는가? 요 7:19.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음을 보이심으로 그분이 신성을 가지셨다는 증거를 랍비들에게 보여 주셨다. 베데스다에서 병 고치심을 본 이후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해 왔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자신들이 수호하고 있다고 공언하는 율법을 스스로 범하고 있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고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셨다.” -시대의 소망, 456.

나. 랍비들은 그리스도께 대답하면서 그분을 무엇에 대해 비난했고, 그분은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요 7:20~23.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묘한 말[그분의 놀라운 일들이 악령에 의해 선동되었다는]에 유의하지 않으셨다. 그는 계속하여 베데스다에서 병 고친 일은 안식일에 관한 율법에 일치하며 유대인들의 율법 해석으로도 정당한 일임을 보이셨다. 예수님께서서는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할례를 주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율법에 의하면 어린아이마다 팔일째 되는 날에는 할례를 받아야 했다. 정한 날이 안식일에 해당되어도 예식을 행하여야만 하였다. 그렇다면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함이 율법의 정신에 얼마나 더 일치되는 일인가!” -시대의 소망, 456, 457.

다. 그리스도의 다음 경고의 광범위한 의미를 설명하라. 요 7:24.

“관원들은 잠잠하였으나 많은 백성들은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줄 알았는가’라고 부르짖었다.” -시대의 소망, 457.

“[그리스도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사람이 판단하듯이 판단하지 않으신다. 그는 사람을 그의 계급, 재능, 교육 또는 지위에 따라 평가하지 않으신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보살피리라’고 그는 선언하신다.” -영문시조, 1897.10.21.

5. 인간 vs 하나님의 심판

가. 성경은 이 세상에서 사회의 정신 상태를 어떻게 묘사하는가?(고대에서는 자주 보이던 모습이었지만 특별히 현대에서는 어떠한가?) 사 59:14, 15.

“악의 세력들은 그들의 힘을 결속하여 강화시키고 있다. 그들은 마지막 큰 위기를 위하여 힘을 모으고 있다. 큰 변화가 미구에 이 세상에서 일어날 것이고 마지막 동요가 신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

원수는 공의를 왜곡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기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는 욕망으로 충만케 하는 일에 성공을 거두었다. ... 굶주린 사람들의 절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는 한편,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압박과 착취로 거대한 재산을 축적하고 있다.” -교회증언 9권, 12.

나. 혼란 속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의 길을 신뢰할 수 있는가? 사 55:8, 9.

“물론 유한한 사람의 지력(知力)을 가지고 무한하신 분의 계획을 이해한다든가 그분의 목적의 성취되는 과정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을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그토록 우둔한 것은 그들의 잘못이나 게으름 때문이다. 일반 사람들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종들까지도 사람들의 견해와 유전과 거짓 교훈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밝혀주신 큰 사건들을 부분적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 -각 시대의 대쟁투, 344, 345.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그분의 이상은 가장 높은 인간의 생각이 미칠 수 있는 그 이상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율법을 통하여 그분의 품성의 사본을 주셨다.” -교회증언 8권, 63.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9:10

1. 예수님이 자란 가정환경을 설명하라.
2.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보인 태도는 오늘날에도 어떻게 자주 반복되는가?
3. 예수님에 대해 어떤 모순된 의견이 유포되었는가?
4. 랍비들이 예수님에게 보인 정신을 설명하라.
5. 인간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 사이의 엄청난 차이를 설명하라.

이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은 없었노라

“관원들이 대답하되 이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은 결코 없었노라”(요 7:46)

참조할 연구교재: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506~512.

“예수님께서서는 진리에 대한 지각과 인식은 지성보다는 마음에 더 의존한다고 말씀하셨다. 진리는 심령에 받아들이는 바 되어야 하며 의지의 충성을 요구한다.” -시대의 소망, 455.

첫째 날(일요일)

4월 20일

1.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가.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설교하시는 것을 듣고 보고 나서 어떤 유대인들은 무엇이 라고 물었는가? 요 7:25, 26.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관원들의 음모를 잘 아는 예수님의 청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그에게 이끌려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그들을 짓눌렀다.” -시대의 소망, 457.

나. 사단은 통치자들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어떻게 행동했는가? 요 7:27.

“그러나 사단은 곧 의심을 불러 넣었다. 메시아와 그의 임하심에 대한 그들 자신의 그릇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이 준비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나 얼마 후 그가 사라질 것이며 그가 두 번째 나타날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믿고 있었다. 메시아는 인성과는 아무런 생래적(生來的) 관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리고 메시아의 영광에 대한 일반 백성의 관념이 나사렛 예수님에게는 들어맞지 않은 까닭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는 암시에 유의하게 되었다.” -시대의 소망, 457.

2. 악의적인 계획이 막힘

가. 의심하는 청중의 생각을 읽고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요 7:28.

“그들이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는 동안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기원이 어디임을 안다고 주장하였지만 사실은 그것을 조금도 알지 못하였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애 하였다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임을 알았을 것이다.” -시대의 소망, 457.

나. 예수님을 반박할 논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유대인 지도자들은 어떤 수단을 사용하여 그분을 침묵시키려고 했는가? 요 7:30[상단]. 사실, 그들은 왜 그분을 체포할 수 없었는가? 요 7:30[하단].

“청중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여러달 전에 산헤드린 앞에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신 그 말씀의 반복이었다. 그 때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 그 관원들은 그를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분노를 제한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그들을 막으시고 그들에게 여기까지 가고 이상 더 가지 말라고 말하였다.” -시대의 소망, 457.

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그리고 통치자들은 사람들이 그분에 대한 동정심을 품는 것을 깨닫고 나서 무엇을 할 계획이었는가? 요 7:31, 32.

“사건의 추이를 근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던 바리새인의 지도자들은 무리 가운데서 동정의 표시를 간파하였다. 그들은 급히 대제사장에게로 달려가 예수님을 체포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 앞에서 감히 예수님을 잡을 수 없었으므로 그가 홀로 계실 때 잡으려고 준비하였다.” -시대의 소망, 457, 458.

3. 초대

가. 축제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서는 죄에 지친 영혼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 어떤 아름다운 예를 사용하셨는가? 요 7:37, 38.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마음은 증발하는 연못과 같지도 않고 그 물을 저장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와 같지도 아니하다. 그것은 마르지 않는 샘물을 받아 흘러가는 산속의 냇물과 같아서 그 시원하고 맑은 물이 바위에서 바위로 흘러 내려 피로한 사람들과 목마른 자들과 무거운 짐진 자들을 소생시켜 줄 것이다. 그것은 끊임없이 흐르는 강과 같아서 흘러감에 따라 점점 깊고 넓어져서 마침내 그 생기를 주는 물이 온 세계에 퍼질 것이다. 졸졸거리며 흐르는 시내는 그 뒤에 신록과 풍요한 선물을 남기고 흘러간다. 그 언덕에 있는 풀은 더욱 싱싱하고 푸르며 나무들은 더욱 푸르름이 짙고 더욱 많은 꽃들이 피게 된다. 여름의 뜨거운 열로 인해 풀이 타 죽고 갈색 땅이 드러날 때에도 강줄기를 따라 푸른 신록의 선이 이어질 것이다.

참 하나님의 자녀도 그렇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생기를 주고 널리 퍼지는 원칙으로서 그 자체가 살아 있고 실용적인 영적 힘임을 나타낸다. 하늘의 진리와 사랑의 감화에 심령이 열릴 때에 이 원칙들은 다시 사막의 샘처럼 흘러서 지금은 불모의 땅이며 기근이 있는 곳에 풍성한 결실을 가져오게 할 것이다.” -선지자와 왕, 233, 234.

“그리스도께서는 확실한 소망과 최악적 기질에서의 구원을 주시고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요 7:37)고 말씀하신다.” -치료봉사, 179.

나. 이 초대를 어떻게 더 잘 이해해야 하는가? 요 7:39.

“그리스도는 복음을 통하여 진리의 원칙들을 제시하셨다. 그분의 가르침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 -교회증언 8권, 309.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산 신앙이다. 심령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리스도를 위한 열성으로 충만하고, 넓은 범위의 의무감을 가진 개인은 선을 위하여 강력한 영향을 발휘할 것이다. 그는 낮고, 흐리고, 오염된 시내에서가 아니라, 물 근원에 있는 깨끗하고, 질이 좋은 물을 마신다. 그리하여 그는 새 정신과 능력을 교회에 전달할 수 있게 된다. 밖에서 오는 압박이 증가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교회가 그들이 믿는 신성하고 엄숙한 진리로 활력이 넘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역사하고 있는 하늘에서 온 성령께서는,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원수에 대하여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큰 승리를 준비해 두고 계신다.” -교회증언 5권, 582.

4. 어떤 것과도 다른 말씀

가. 그리스도께서 생명수에 대해 언급하신 결과로 많은 사람이 어떤 결론을 내렸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요 7:40(신 18:15 비교).

나.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전망에 희망을 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요 7:41~44.

다. 관리들은 통치자들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았는가? 요 7:45. 그들은 왜 예수님을 체포할 수 없었는가? 요 7:46.

“절기의 마지막 날에 제사장들과 당국자들이 하속들을 보내어 예수님을 잡아오라 하였으나 그들은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돌아왔다. 제사장과 당국자들은 분노하여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고 물었다. 하속들은 엄숙한 표정으로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 때까지 없었나이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들의 마음은 강팍했었지만 그의 말씀을 듣고 녹아 버렸다. 예수님께서 성전 마당에서 가르치시고 계신 동안 그들은 가까이 와서 그에게서 어떤 일을 책잡으려 하였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 그들은 그들이 파송되어진 목적을 잊어버렸다. 그들은 황홀감에 빠진 사람들처럼 서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영혼들에게 그분 자신을 계시하셨다. 그들은 제사장들과 당국자들이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 즉 신성의 영광으로 넘치는 인성을 보았다.” -시대의 소망, 459.

“그분은[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하여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천연계의 사물들을 사용하셨다. 마음의 흐름은 이리하여 좋은 씨를 받아들이기 준비가 되었다. 그분은 그분의 청중들로 하여금 그분의 관심이 그들의 관심과 동일하고 그분의 심장이 그들의 기쁨과 슬픔에 있어서 그들을 동정함으로 뛰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셨다. 동시에 그들은, 그들의 가장 존귀한 랍비들이 소유한 것보다 훨씬 우월한 능력과 탁월함이 그분 안에 나타나 있음을 보았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그들에게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단순과 위엄과 능력으로 특징지어졌다. 그러므로 그들은 무의식 중에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 때까지 없었나이다’(요 7:46)라고 부르짖었다. 백성들은 그분의 말을 즐거이 들었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랍비들-진리의 수호자로서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에 불성실한 그들 자신-은 무리들을 그들에게서 떠나 생명의 빛을 따르게 한 바로 그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를 미워했다. 그들의 성향 때문에 유대 민족은 그분의 신적인 특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구속주를 거절했다.” -교회증언 5권, 747.

5. 진정한 추구자의 성숙함

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하속들을 어떻게 꾸짖었는가? 요 7:47~49.

나.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의 대화, 즉 니고데모가 밤에 그리스도와 면담한 이후 성장한 모습을 말해보라. 요 7:50~52.

“니고데모는 진리를 그의 마음속에 감추어 두었으므로 삼년 동안 표면적인 결과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리스도를 공공연히 승인하지는 않았으면서도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그리스도를 멸하려는 제사장들의 음모에 대해서는 거둑 반대했었다.” -사도행적, 104.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요 3:의 방문 때에) 주신 교훈은 헛되지 않았다. 확신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마음으로 그는 예수님을 받아 들였다. 구주를 만나 뵈고 난 후 그는 열렬히 구약 성경을 살펴보고, 복음의 참된 위치에 놓여진 진리를 보았다.

회의석상에서 한 그의 질문은 현명한 질문이었다. 만약 회의를 사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원수에게 기만을 당하지만 않았더라면 그 질문은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편견에 꼭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님을 옹호하는 말이 아무리 논리가 정연하고 확신을 주는 이론이라도 그들에게는 그것이 별로 큰 무게를 갖지 못하였다. 니고데모가 받은 대답은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은 속아 왔으며, 사단이 그들에게 의도한 대로 그들은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왔다고 믿었다. 그분이 베들레헬에서 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도 거짓 것이 득세하도록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성경 주석[화이트주석] 5권, 1136.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9:16

1.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관심과 존경을 끄신 이유는 무엇인가?
2.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막으려고 계속 노력했는가?
3. 예수님께서서는 명절 마지막 날에 어떤 대중적 호소를 하셨는가?
4. 그 결과로 일어난 큰 논란을 설명하라.
5. 내가 아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니고데모에 대해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세계 선교를 위한 첫째 안식일 연금

오늘날, 시기적절한 기별이 울려 퍼진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선교 정신이 고무되어야 한다. 매 교인마다 본국에서, 외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업이 전진할 수 있을지를 연구해야 한다. 선교 지역에서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일 가운데 천분지 일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자들에게 그분의 영토를 넓혀 가라고 명하신다. 신실한 일꾼이 일할 곳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 천사들이 이기심 없이 일할 모든 교인들과 협조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선교 사업을 위하여 조직되었으며 주님께서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진리의 기별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교회가 고안해 내기를 바라신다. 모든 사람이 몸소 외방 선교에 참여하라는 소명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기도와 선교 사업에 도움이 되는 헌금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

“열렬한 그리스도인인 어떤 미국인 실업가가 동료 사업가와의 대화에서 그는 하루 24 시간 동안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한다고 하였다. 그는 말했다. ‘나는 나의 모든 사업 관계에 있어서 나의 주님을 나타내고자 힘씁니다.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노력합니다. 온 종일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고 내가 잠자고 있는 밤에는 나 대신 중국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다시 이어서 설명하였다. ‘젊었을 때에 나는 이방 나라에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했었지요. 그런데 불행히도 나의 부친이 세상을 떠나시자 가족들을 부양해야 했으므로 아버지의 사업을 떠맡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내가 선교사로 가는 대신에 한 선교사를 보내고 후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는 지금 중국 어느 지역의 한 도시에 주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잠자는 동안에도 저의 대리인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증언 6권, 29, 30.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세계 선교를 통해 하늘 은행에 투자할 때이다. 더 쉬워지지 않을 것이고, 나중에는 너무 늦을 수도 있다. 영혼들은 그리스도와 현대 진리 없이 멸망하고 있으며, 주님은 우리에게 지구 전역에 퍼질 귀중한 빛을 맡기셨다.

관대하게 기부해 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선물을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란다. 감사합니다!

-세계 대총회 안식일 학교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요 8:11)

참조할 연구교재: 교회증언 2권, 73~77.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비난하는 데는 느리고 회개함을 분별하여 용서와 격려를 하는 데는 신속하고 방황하는 자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그의 발이 그 길에 머무르도록 한다.” - 시대의 소망, 462.

첫째 날(일요일)

4월 27일

1. 예수님에 대한 함정

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동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했는가? 요 8:2, 3.

“일단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거칠고도 열띤 음성으로 그녀가 일곱째 계명을 범하였다고 비난하면서 공포에 사로잡힌 한 여인을 끌고 그에게 나왔으므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는 일은 곧 중단되었다.” - 시대의 소망, 460.

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한 큰 존경심을 보이며 그리스도께 어떤 질문을 했으며, 그들의 진짜 의도는 무엇이었는가? 요 8:4~6[상단].

“그들의 꾸며낸 존경에는 그를 해하기 위하여 교묘하게 짜놓은 음모가 가리워져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실지라도 그를 고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정죄할 구실을 확보하기 위해 이 기회를 이용하였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면 그는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며,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선언한다면 그는 로마인들만이 가진 권리를 횡령한다고 로마인에게 고소 당할 것이었다.” - 시대의 소망, 460, 461.

2. 참 모습이 드러남

가. 예수님께서서는 바리새인들의 거짓말에 어떻게 대응하셨는가? 요 8:6[하단].

“예수님께서서는 잠시 동안 수치심으로 떨고 있는 여인과 인간적인 동정조차 없는 철면피한 고관들을 바라보셨다. 흠 없이 순결한 그의 정신은 그 광경을 보고 움츠러들었다. 어떠한 목적에서 이런 문제를 그에게 가져오게 되었는지 예수님께서서는 잘 알고 계셨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분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그들의 품성과 생애의 어떠함을 아셨다. 소위 정의의 수호자들이라는 이들이 예수님을 해할 함정을 만들기 위하여 이 여인을 죄 짓게 했던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질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혀 시선을 땅에 고정시키시고 흠에다 글씨를 쓰기 시작하셨다.” -시대의 소망, 461.

나. 예수님께서서는 고발자들도 죄가 없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 주셨는가?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요 8:7~9.

“고발자들의 계획은 좌절되었다. 이제 거룩함을 가장하던 그들의 의복은 찢겨진 채 그들은 무한히 순결하신 분 앞에서 정죄를 받고 서 있었다. 그들은 그들의 생애의 숨은 죄악이 무리들 앞에 공개될까봐 두려워 떨면서 머리를 숙이고 눈을 땅에 떨어뜨린 채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희생자와 동정하시는 구주를 남겨두고 슬금슬금 도망쳐 버렸다.” -시대의 소망, 461.

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모두 고발자들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눅 6:42.

“그들에게 결함으로 보이는 것들을 개혁하고자 하는 욕망에 있어서 성숙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 그들은 실수한 자들의 자리를 취하도록 그들이 선택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구경하면서 비난하고 있는 동안 그 교역자들이 이룩한 사업을 과소평가한다.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큰 일들을 할 수 있다. 나는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척시킬 수 있다.’ 실수를 피하는 법을 너무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나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마 7:1)고 말해 주라는 지시를 받고 있다. 그대들이 어떤 면에서는 실수를 피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그대들은 중대한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잡기가 매우 어렵고 사업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이런 실수들은 그대의 형제들이 저지른 것보다 더 많은 손해를 줄 것이다.” -교회 증언 7권, 279.

3. 예상치 못한 행동

가. 고발자들이 떠난 후 예수님께서서는 그 여자에게 어떤 질문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분이 상황을 처리하신 방식은 그녀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요 8:10, 11.

“그 여자는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서 있었다. ‘너희 중에 죄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 여자에게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그 여자는 감히 눈을 들어 구주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조용히 자신의 운명을 기다렸다. 그는 자기를 고발하던 자들이 부끄러워 하면서 말없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런데 이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희망의 말이 그의 귀에 들려왔다. 그의 마음은 녹아졌다. 그리하여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한 마음으로 흐느껴 울었다. 그리고 쓰라린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였다.

이것은 그 여자에게 있어서 순결과 평화의 생애, 하나님께 헌신한 새생애의 시작이 되었다. 이 타락한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서는 가장 지독한 육체적 질병을 고치시는 것보다 더 큰 이적을 행하셨다. 그분께서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영적 질병을 고치셨다. 이 회개한 여인은 예수님을 가장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 중의 하나가 되었다. 자아 희생적 사랑과 헌신으로 그 여자는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 은혜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었다. 잘못을 범한 이 여자에 대하여 세상은 다만 멸시와 조롱만을 했지마는, 그 여자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신 죄없는 그분께서는 도움의 손길을 그 여자에게 뻗으셨다.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은 정죄하였지마는 예수님께서서는 그 여자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치료봉사, 89.

“이 여인을 용서하시고 고상한 생활을 하도록 격려하신 이 일 가운데서 예수님의 성품은 완전한 의의 아름다움으로 빛났다. 예수님께서서는 죄를 가볍게 하시거나 죄책감을 경감시키지 않으시는 동시에 정죄하려 하지 않으시고 구원하려고 노력하신다. 세상은 이 길로 나아간 여인에게 멸시와 조롱밖에는 주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위안과 희망의 말씀을 하셨다.” -시대의 소망, 462.

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의 효과를 설명하라. 눅 7:37~40, 47, 48.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사람들의 환경을 아신다. 죄인의 죄가 크면 클수록 그에게는 구주가 더욱 필요하다. 거룩한 사랑과 긍휼로 이루어진 그분의 마음은 무엇보다도 가장 속절없이 원수의 울무에 사로잡혀있는 사람에게로 끌려간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피로써 인류의 해방문서에 서명하셨다.” -치료봉사, 89, 90.

4, 넘치는 위로

가. 우리의 태도, 특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우리의 태도를 특징짓는것은 무엇이며,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고후 1 : 3~5,

“환경은 영혼의 경험에 별반상관이 없다. 우리의 행동을 빛나게 하는 것은 소중히 간직된 정신이다. 하나님과 그의 동료 인간들과 화목을 이룬 사람은 불행하게 될 수 없다. 시기가 그의 마음속에 있지 않을 것이며, 악한 추측도 용납될 수 없다. 증오심도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마음은 이 세상 생애의 번민과 시련에서 벗어난다.” -교회증언 5권, 488,

“예수님께서 위로의 봉사를 하신 것은 고난을 통해서였다. 그분은 인류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같이 당하신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히 2 : 18 ; 사 63 : 9) ,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이 봉사 사업에 참여할 특권을 부여 받고 있다.” -산상보훈, 13.

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데서 우리가 가진 독특한 소망과 특권을 설명하라. 고후 1:6, 7,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만일 그대가 죽어 가는 영혼들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면, 만일 그대가 성취되어야 할 사업을 위하여 자금을 저축하는 일에 즐겨 희생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대를 위한 자리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매 발걸음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고난과 극기에 참여하는 자가될 필요가 있다.” -교회증언 9권, 103,104.

다. 세 천사의 기별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필요한 특성을설명하라. 고전 13:13, 4-8,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특성들은 곧 인내와 오래 참음과 화평과 사랑이다. 사랑이 부족할 때에 만회할 수 없는 손실을 입게 된다.” -교회증언 6권, 398,

5, 부드럽게 회복시킴

가. 그리스도인이 죄에 빠졌을 때 거짓된 마음을 가진 신자들이 종종 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참된 신자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갈 6:1-3 ; 롬 15:1-3 ,

“회복의 사업이 우리의 짐이 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 이 일은 교만하고, 사무적이며, 교묘한 방법으로 수행되어서는 안 된다. 그대의 태도로 ‘내가 세력이 있으니 그 힘을 써서 도와주겠다’는 식으로 말하지 말며, 잘못을 한 당사자에게 비난을 퍼붓지 말라. 회복의 일을 ‘온유한 정신으로 하며 자신을 살피서 자기도 유혹을 받지 않게 하라.’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해야 할 바 우리 앞에 놓인 일은 그들을 한 편으로 제쳐놓는다거나 그들에게 ‘당신이 나를 실망시켰기 때문에 당신을 도와주지 않겠소’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실망과 좌절 속으로 몰아넣지 않는 것이다. 자신을 지혜와 힘이 충만한 자로 드높이며, 억압받고 곤란에 빠져 도움을 구하는 자의 기세를 꺾는 자는, 바리새인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이며 자신이 구성한 위엄의 옷으로 지끼를 치장하는 것이⁴, 그런 정신 속에서 그는 그가 다른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의 삶이 칭찬할 만하며 자신을 유혹 받지 않을 정도로 튼튼하다고 상상한다. 그러나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3절).” -교회증언 6권, 398, 399 ,

“과오를 범한 자들이 타락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두고 그들에게서 눈을 돌이키는 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을 고발하는 데 앞장서고 그들을 재판하여 처벌하는 데 열중하는 자들이 오히려 그들회 생애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보작 더욱 죄가 많은 수가 있다. 사람들은 죄는 사랑하면서도 죄인은 미워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비난하는 데는 느리고 회개함을 분별하여 용서와 격려를 하는 데는 신속하고 방황하는 자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그의 발이 그 길에 머무르도록 한다.” -시대의 소망, 462 ,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9 : 22

- 1,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위해 준비한 함정을 설명하라.
- 2, 위선적인 유대인들은 어떻게 율법에 대한 겉보기의 존중심을 보였는가?
- 3, 고발하는 유대인들은 자신에 대해 무엇을 인정해야 했는가?
- 4, 학대를 받은 잘못된 여자에게 주어진 희망을 설명하라.
- 5, 잘못된 영혼을 대할 때 어떻게 예수님과 더 비슷해질 수 있는가?

예수님은 세상의 빛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 8:12)

참조할 연구교재: 교회증언 1권, 405~409.

“태양계의 달과 별들이 모두 태양의 빛을 받아 빛나는 것처럼, 세상의 위대한 사상가들도 저희 가르침이 진실된 한 의의 태양이신 분의 빛을 반사하는 것이다. 섬광처럼 빛나는 사상과 번뜩이는 지성은 그 하나하나가 세상의 빛 되신 분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교육, 14.

첫째 날(일요일)

5월 4일

1. 창조를 회상함

가.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첫날에 무엇을 창조하셨는가? 창 1:3~5.

“태초에 창조력을 가지신 말씀에 의하여 빛이 어두움을 비쳤다.” -시대의 소망, 464.

나. 세상이 창조될 때, 단순한 입회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누가 존재했는가?
창 1:1, 2; 요 1:1, 2; 골 1:16.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 사업 가운데 나타나셨다. 하늘을 펴시고 땅의 기초를 세우신 분은 그리스도이셨다. ...

이 땅을 아름다움으로 채우시고 공중을 노래로 채우신 분도 그분이다. 그는 땅과 공중과 하늘에 있는 모든 만물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기별을 기록하셨다.” -시대의 소망, 20.

“모든 세계를 공간에 달려 있게 하고, 우주 만물을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지치지 않고 활동하도록 붙드는 손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다.” -교육, 132.

2. 광야의 빛

가.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되었는가? 출 13:21, 22.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싸인 임재를 설명하라. 출 13:21[상단]; 고전 10:1~4.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분을 나타내실 때 빛은 항상 그의 임재하심의 상징이었다. 태초에 창조력을 가지신 말씀에 의하여 빛이 어두움을 비췌다. 빛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에 싸여서 이스라엘 대군을 인도하였었다.” -시대의 소망, 464.

나. 사막에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신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해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어떤 보호를 약속하셨는가? 시 105:39; 사 4:5, 6.

“가장 아름답고 위안이 되는 이사야의 예언의 글귀에는, 악의 세력과 싸우는 최후의 대투쟁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분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나타내는 것으로 언급되어 있다.” -부조와 선지자, 282, 283.

다. 그리스도께서는 시내산에서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셨으며, 모세와 백성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출 19:16~18; 20:18, 19; 히 12:21.

“‘산 위의 여호와와 영광’이 모인 군중의 눈에는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 여호와와 임재의 표징이 심히 무서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에 질려 땅에 엎드렸다.” -부조와 선지자, 304.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능히 감당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께 그렇게도 고귀한 은총을 받고 있었던 모세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외쳤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지극히 큰 영광을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셨고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그의 얼굴로부터 비취는 빛을 직접 볼 수 없을 정도로 하늘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225.

3. 하나님의 거처에 있는 빛

가.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성막에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셨는가? 출 40:34, 35.

“이스라엘 군중들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거룩한 건물을 보기 위하여 그 주위에 모여들었다. 그들이 경건하고 만족스런 마음으로 그 광경을 응시하고 있을 때에 구름기둥이 성소 위로 떠올랐다가 내려와 그것을 덮더니 ‘여호와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출 40:34)였다.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 있었으므로 한동안 모세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다. 백성들은 깊이 감동되어서 그들의 손으로 만든 성소가 가납된 증거를 보았다. 거기에는 기뻐 환화하는 일도 없었다. 모든 사람에게 엄숙한 두려움이 임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즐거움이 기쁨의 눈물을 자아냈으며 그들은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는 허락을 주신 데 대해 진심에서 나오는 감사의 말을 낮은 음성으로 중얼거렸다.” -부조와 선지자, 349, 350.

“속죄소 위에는 쉼이나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현현인 영광의 광채가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룹 사이에서 그분의 뜻을 알려 주셨다. 하나님의 기별은 때때로 구름 속에서 들리는 소리를 통해 대제사장에게 전달되었다. 때로는 바른쪽 천사 위에 빛이 비치어 시인 또는 가납을 표하고, 왼쪽 천사에게 그들이나 구름이 머물러서 불가 또는 거부를 나타냈다.” -부조와 선지자, 349.

나. 나중에 성전이 봉헌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대하 7:1.

“모세가 산에서 본 본을 따라, 그리고 그 후에 주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본을 따라 지극히 화려한 성소가 만들어졌다. 지상의 성소가 하늘의 성소와 같이 만들어졌다. 솔로몬은 법궤 위에 있는 그룹 외에도 두 명의 더 큰 천사를 만들어 법궤의 양쪽 끝에 서게 했는데, 이는 항상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천상의 천사를 상징한다. 이 장막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막에서와 마찬가지로 그곳에서도 신성한 법궤는 엄숙하고 경건한 질서로 운반되어 바닥에서 있는 두 개의 위엄 있는 그룹 날개 아래에 제자리에 놓였다.

성스러운 합창단은 온갖 악기와 함께 목소리를 합쳐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리고 악기와 함께 화음을 맞춰서 성전을 울리고 예루살렘을 통해 공중으로 운반되는 동안, 마치 예전에 성막을 가득 채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 집을 채웠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오자 구름이 여호와와 전을 가득 채웠으므로 제사장들이 구름 때문에 서서 제사를 드릴 수 없었으니 여호와와 영광이 여호와와 전을 가득 채웠음이라’(왕상 8:11).” -영적선물 4권, 113, 114.

4. 복음의 빛

가. 요한복음 8:12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어떤 기별이 우리에게 큰 소망을 가져다주는가?

“재림의 진리를 이해하고 그 진리를 전하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은 소위 학문적인 면에서 신학자들은 아니었다. 만일 신학자들이 열렬하고 경건하게 성경을 연구하는 충실한 파수꾼들이었다면, 그들은 어두움의 시기를 반드시 깨달았을 것이었다. 예언은 그들에게 바야흐로 일어날 사건을 알려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와 같은 위치에 서지 않았으므로 기별은 보다 비천한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거절하거나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빛을 찾는 일을 등한히 하는 자는 암흑 가운데 버려진다.” -각 시대의 대쟁투, 312.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부하고 풍성하고 기쁜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 놓으셨다. 요한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한다. 생명은 빛과 함께 하며 만일 우리가 의의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지 못한다면 주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이 빛은 각 영혼을 위하여 마련되어 있으며 다만 그 빛에서 돌아서면 우리에게 어두움이 임한다. 예수님께서서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세상에 빛이 없으면 생명이 있을 수 없다. 태양 빛을 가리우면 모든 채소, 모든 동물의 생명은 멸절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의 태양아래 두지 않는다면 영적 생명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설명해 준다. 만일 우리가 어두운 방에 꽃이 피는 식물을 놓아두면 곧 시들어서 죽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영적 생명을 갖고 있어도 의심하고 침울한 분위기에 거함으로 영적생명을 잃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281.

나. 우리가 예수님께로 향할 때 어떤 확신이 오는가? 고후 3:18.

“꽃이 태양의 밝은 광선을 받아 자신의 아름다움과 균형진 미를 완전하게 하는 데 도움을 얻듯이,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의의 태양을 향하여 하늘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어 그들의 품성을 완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물에 대하여 깊고도 내재하는 경험을 주도록 해야 한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이 합치한다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26.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고 이미 주어진 빛을 열심으로 탐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보다 큰 빛을 받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사람에게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를 인도해 줄 하늘의 광휘를 지닌 어떤 별들이 보냄을 입을 것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312.

5. 우리 마음속의 빛

가. 바울이 세상의 빛에 대해 고무적으로 언급한 것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고양될 수 있는가? 고후 4:6.

“그대의 마음을 하나님께 대한 영광스러운 생각으로 가득 채우라. 그대의 생애를 보이지 않는 끈으로 예수님의 생애와 연결시켜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취리라’(고후 4:6)고 하신 그는 그대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시기를 기뻐하신다. 성령은 하나님께 대한 것을 그대에게 보여 주시고 그것이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 살아 있는 능력이 되게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인도하사 무한한 세계의 문턱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대는 거기서 휘장 뒤에 있는 영광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며 또한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충만하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게 될 것이다.” - 실물교훈, 149.

“예수께서는 인성 속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써 하늘이 인간에게 매우 가까이 오도록 하신다. 그리하여 내적 성전을 단장하는 아름다움이 구주께서 거하시는 모든 사람의 심령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내재하시는 구주의 영광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이와같이 하여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은 많은 영혼들에게서 흘러나오는 찬송과 감사의 조류(潮流)를 타고 그 영광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 60:1). 이 기별은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자들에게 전하여져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 그분은 그분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 그분은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같이 오신다. 온 세상이 흑암 가운데 있을 때에 성도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는 빛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의 빛을 누구보다도 먼저 보게 될 것이다. 그의 혁혁한 빛으로 부터 전혀 오점이 없는 밝은 빛이 비취게 될 것이며, 구속자이신 그분은 그분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로 부터 경배를 받으시게 될 것이다. 악한 자들이 그리스도를 피하여 도망하는 반면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기뻐할 것이다.” - 실물교훈, 420, 421.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9:29

1. 성경은 창조의 사역에서 신격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는가?
2.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그분의 백성에게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셨는지 설명하라.
3. 그리스도의 빛은 성막과 성전에서 어떻게 빛났는가?
4. 예수님께서 성전 봉헌식에서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셨는지 설명하라.
5.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거부당한 빛인가 반사된 빛인가?

“여호와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시 27:1)

참조할 연구교재: 교회증언 7권, 18~28.

“그리스도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취는 빛’(요 1:9)이시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는 것처럼 모든 심령이 하늘의 거룩한 진리의 빛을 받는 것도 그리스도를 통해서이다.” -교육, 29.

첫째 날(일요일)

5월 11일

1. 예언된 빛

가. 성령은 이사야를 통해 예수님을 어떻게 언급하셨는가? 사 49:6.

나. 시므온은 예수님을 봉헌하기 위해 성전에 데려왔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식별했으며,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숙고하게 하는가? 눅 2:32.

“연로한 시므온은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성전에서 그에 대하여 ‘이방을 비취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눅 2:32)라고 말한 일이 있었다. 이 말씀으로 시므온은 모든 이스라엘에게 잘 알려진 예언을 예수님에게 적용시키고 있었다. 이 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성령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다. ‘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 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사 49:6). 이 예언은 메시아에 관하여 말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었으며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백성들은 자신이 바로 약속되신 사람이라는 그의 주장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 -시대의 소망, 465.

“베들레헴의 그 놀라운 이야기에는 참으로 훌륭한 교훈이 있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의 불신과 오만과 자부심을 진정으로 견책해 주고 있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죄스러운 무관심 때문에 시대의 징조를 분별치 못함으로 권고(眷顧)하시는 날을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깨우쳐 주는 경고가 되지 않는가.” -각 시대의 대쟁투, 314, 315.

2. 거부당한 빛

가. 유대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명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요 1:11; 8:13.

“그리스도의 전 생애와 가르침은 겸손, 자비, 덕, 자기 부인의 끊임없는 교훈이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나타난 독선적이고 가혹한 마음에 대한 끊임없는 책망이었다. 사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들에 대한 언급만으로도 광분하는 것처럼 보일 때까지 그들을 이끌었고, 그로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냈다. 그들은 마침내 예수님이 사기꾼이라고 믿게 되었고, 그를 없애기 위해 고안해 낼 수 있는 모든 수단은 그들에게 미덕이 될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영적선물 4권, 117.

나. 예수님께서서는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명확한 설명을 하셨는가?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요 8:14~18.

“[바리새인들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탐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격과 사명을 몰랐다. 그것은 그들의 특권이자 의무였다. 그들은 하나님과 하늘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의 구주의 일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서서 그 구세주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받았지만, 그들은 마음을 열어 이해하기를 거부했다. 처음에 그들은 마음을 그분에게 대적했고, 그분의 신성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를 믿기를 거부했으며, 그 결과 그들의 마음은 더 굳어져서 결국 그분을 믿지도 받아들이지도 않기로 결심했다.” -예언의 신 2권, 354, 355.

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과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 사이에 어떤 현저한 대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가? 요 8:19~23.

라. 유대 통치자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한 치명적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요 8:24; 마 23:38.

3. 두 종류의 청중들

가. 바리새인들은 죄로 죽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은 후,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요 8:25[상단]

“그들은 그의 말씀을 무시하려는 듯이 ‘네가 누구냐’고 힐문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서서 친히 그리스도라고 선언하지 않을 수 없게 하려고 열중했다. 그의 품채와 사업이 백성의 기대에 매우 어긋났으므로 교활한 원수들이 믿고 있었듯이 그가 직접 자신이 메시아라고 선언한다면 그는 사기꾼으로 배척을 당하게 될 것이었다.” -시대의 소망, 465.

나. 구주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아버지와의 특별한 관계를 드러내셨는가? 요 8:25[하단] 26~29.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에 대한 충성에서 결코 이탈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아버지의 뜻에 반대되는 것은 어떤 것도 결코 하지 않으셨다. 천사들과 사람들과 마귀들 앞에서, 그분께서는 다른 어떤 사람의 입술로부터라면 모독죄가 되었을 말씀, 곧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요 8:29)한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으셨다. 3년 동안 날마다 그분의 원수들은 그분을 따라 다니면서 그분의 품성에서 어떤 흠을 찾고자 노력했다. 사단은 그의 모든 악의 연합체를 동원하여 그분을 정복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그들은 유리한 위치를 얻을 수 있는 어떤 것도 그분에게서 발견하지 못했다. 마귀까지도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교회증언 8권, 208.

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함께 매일 걸으신 일과 우리가 그 경험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설명하라. 요 15:10; 엡 2:4~6.

“예수님께서서 인성을 입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도 그렇게 되도록 의도하신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구주께서 생애하신 순결하고 고결한 생애를 살아야 한다.” -교회증언 8권, 289.

“지상에서의 구주의 생애는, 비록 투쟁의 와중에서 보낸 것이라도 평화의 생애였다. 분노한 원수들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중에도, 그분께서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요 8:29)고 말씀하셨다. 어떤 인간적인 소동이나 사단의 분노도 이같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통으로 얻어지는 안정은 깨뜨릴 수가 없었다.” -산상보훈, 15, 16.

4. 빛이 반사됨

가.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날카로운 진리를 말씀하셨을 때, 그분의 말씀은 진실한 청중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 우리에게 왜 격려가 될 수 있는가?
요 8:30.

“그리스도께서는 차분하고 지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고, 그분을 정죄하려는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키는 법을 아셨다. 주님의 말씀은 표적을 정확히 맞춘 날카로운 화살과 같았고, 그분을 고발하는 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다.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청중이 크든 작든,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청중 중 일부의 영혼에 구원의 효과를 미쳤다.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나온 어떤 기별도 잃어버릴 수 없었다.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책임을 부여했다. 세상에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전하고, 진실을 성실하게 제시하고, 힘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의지하는 목사들은 자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아무도 진리의 화살이 표적을 향해 날아가서 듣는 사람들의 영혼을 꿰뚫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 인간의 눈은 진리의 화살이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없었고, 인간의 귀는 상처 입은 영혼의 외침을 들을 수 없었지만, 진리는 조용히 마음을 향해 길을 뚫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에게 말씀하셨고, 마지막 계산의 날에 하나님의 목사는 구속의 은혜의 전리품을 가지고 서서 영광을 돌려야 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은밀한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으로 진리를 선포한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상을 주실 것이다.” -영문시조, 1896.2.6.

나. 목회자 외에 누가 하늘의 빛을 반사함으로써 축복을 받는가? 시 27:1; 147:15; 사 55:10, 11.

“목회직에 부름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그들의 다양한 능력대로 주님을 위하여 일을 하도록 격려를 받아야 한다. 오늘날 게을러져 있는 수백의 남녀들이 가납될만한 봉사를 할 수 있었다. 그들의 친구와 이웃들의 가정으로 진리를 가져가므로 그들은 주님을 위하여 큰 일을 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비록 다른 어떤 사람들처럼 그렇게 철저한 교육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그분께서는 겸손하고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집집 방문 사업을 하므로 그분을 위한 봉사를 해야 한다. 겸손하고, 신중하고, 경건하기만 하다면 그들은 화로가에 앉아서 가정들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안수 목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게 일할 수 있다.” -교회증언 7권, 21.

5. 속박 VS 자유

가.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요 8:31, 32.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을 어떻게 보지 못했는가? 요 8:33~36.

“[바리새인들] 그들은 가장 나쁜 형태의 속박에 매여 있었다. 즉 그들은 악령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었다. ...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거부하는 영혼은 모두 다른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는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가 자유를 말할 수 있을지라도 가장 비참한 종살이 가운데 빠져 있다. 사단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진리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다. 그는 자신의 판단을 따르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흑암의 왕자의 의지에 순종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영혼으로부터 죄의 속박의 사슬을 끊기 위해 오셨다.

구속 사업에는 강제가 없다. 외부 압력이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성령의 감화 아래서 누구를 섬길지를 선택할 자유가 주어져 있다.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 가장 높은 의미의 자유가 있다. 죄를 버리는 것은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이다. 우리 스스로 사단의 지배를 벗어날 힘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라고 크게 그 필요를 느껴 자신보다 더 높은 힘을 구할 때 영혼의 힘에는 성령의 거룩한 힘이 불어 넣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지의 지배를 받는다.

인간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는 진리이시다. 마음을 약하게 하고 영혼의 자유를 파괴함으로써만 죄는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께 대한 복종은 자신의 참 영광과 사람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가 순종할 거룩한 율법은 ‘자유의 율법’이다(약 2:12).” -시대의 소망, 466.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9:35

1. 시므온이 예수님에 관해 한 말의 의미를 설명하라.
2.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를 대하는 방식을 설명하라.
3. 예수님을 거부한 그들의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4. 진실한 영혼들은 그때와 지금 그리스도께 어떻게 반응하는가?
5. 복음 진리에 비추어 “자유”라는 개념을 설명하라.

예수님과 아브라함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고 기뻐하였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요 8:56)

참조할 연구교재: 실물교훈, 269~271, 330~332; 초기문집, 149~153.

“그[아브라함]는 죽기 전에 메시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매우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그리하여 그는 그리스도를 보았다.” -시대의 소망, 468.

첫째 날(일요일)

5월 18일

1. 아브라함의 아들들

가.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어떤 주장을 반복했는가? 요 8:33, 39[상단]. 그러나 그러한 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요 8:39[하단], 56; 롬 9:6~8.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해 왔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주장은 아브라함의 일을 행함으로써만 확증될 수 있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애를 살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께 받은 진리를 말하고 있는 그분을 죽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랍비들은 그리스도를 해하고자 음모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일을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의 직계 혈통 그 자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같은 정신을 가지고 같은 일을 행함으로 나타나게 될, 그와의 그런 영적 연결이 없었으므로 그들은 그의 자손이 아니었다.

이 원칙은 오랫동안 그리스도교계를 소란스럽게 해온 사도적 계승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똑같이 중요하다. 아브라함의 자손됨은 이름이나 혈통으로써가 아니라 성품의 같음으로만 판명된다. 그러므로 사도직의 계승은 교권의 전달에 의존되는 것이 아니요 영적 관계에 달려 있는 것이다. 사도들의 정신으로 움직여 행동하는 생애, 사도들이 가르친 진리를 믿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참된 사도직을 계승한 증거이다. 이것이 사람들을 복음의 첫 교사들의 계승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시대의 소망, 466, 467.

2. 그들이 사랑했던 것과 다름

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친자손이었지만, 그리스도를 거부했을 때 실제로 누구의 자식이 되었는가? 요 8:41~44.

“예수님께서서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부인하셨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행사를 하는도다’라고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셨다. 그들은 조롱하는 어조로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 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지로다’라고 대답하였다. 암암리에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형편을 가리켜 한 이 말은 그를 믿기 시작하고 있는자들 앞에서 그를 혹평하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서는 비열한 암시에 유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인 마귀와 관계하고 있음이 그들의 행위로 증명되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요 8:44, 45)라고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진리를 확실하게 말씀하셨는바 바로 그것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그가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였다. 진리는 독선적인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 진리는 죄의 기만성을 폭로했으며 그들의 가르침과 행습을 정죄했다. 그러므로 그것은 환영을 받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를 겸손히 회개하는 대신에 진리에 대하여 눈을 감았다.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것이 진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지 않았다.” -시대의 소망, 467.

나.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녀로 만드는 것은 무엇이며,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참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 주었는가? 갈 3:6~9; 요 8:40.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롬 8:15). 노예 정신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애쓰는 율법주의적 신앙 생애를 하려고 할 때에 생기는 것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은혜의 언약 하에 있을 때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 곧 그것을 통하여 그가 소망을 갖게 된 그 복음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된 복음과 꼭 같은 복음이다. 아브라함도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청년지도자, 1892.9.22.

3. 그리스도의 품성

가. 예수님의 적들은 그의 오염되지 않은 품성과 관련하여 어떤 질문에 답할 수 없었는가? 요 8:46[상단].

“지상 생애에서 그리스도는 완전한 품성을 계발하셨으며 그의 아버지의 계명에 완전히 순종하셨다. 인간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시고, 율법에 매인 바 되시고, 사람들에게 그분이 그들의 질병, 그들의 슬픔, 그들의 죄를 지신다는 것을 드러내셨으나 그분은 죄인이 되지 않았다.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분은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고 말씀하실 수 있었었다. 죄의 한 점도 그분에게서 발견되지 않는다. 그분은 세상 앞에 점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서셨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25.

“예수님께서서는 하늘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와 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율법대로 생애 하셨다. 그는 천사들과 악마들 앞에서 나는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그런 주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의 입술에서 나왔다면 참람된 말이 되었을 것이다.” -시대의 소망, 467, 468.

나. 예수님께서 인자로서 말씀하신 것 외에, 성경은 그리스도의 성품에 관해 무엇을 선언하는가? 히 4:15; 벰전 1:18, 19.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믿음은 눈에 보이는 증거에 근거하지 않아야 했으며, 그들은 그분의 개인적 매력 때문에 그분을 믿었지만, 그분에게서 발견된 탁월한 성품 때문에 믿었다. 그 성품은 다른 사람에게서는 결코 발견되지 않았고, 발견될 수도 없다.” -성경주석[화이트주석] 7권, 904.

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삶에 감동을 받아야 하는가? 빌 2:6~8.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때문에 고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 희생적이고, 겸손한 길을 우리의 모본자께서 걷지 않으셨는가?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하실 때, 그분은 역경을 만나시고, 실망을 겪으시고 비난과 고난을 감수하셨다. 그런데 영광의 왕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르기를 우리는 거절해야 하겠는가? 시험의 광야의 우리 구주 주, 겓세마네 동산의 우리 구주, 갈바리 십자가 위의 우리 구주께서 당하신 고통을 기억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 정복하는 일을 할 때 겪게 되는 고난과 시련에 대해 우리는 불평할 수 있겠는가?” -교회증언 3권, 371.

4.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품성

가.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모든 자들의 목표는 무엇인가? 벧전 1:13~16.

“우리의 사업은 우리의 행동의 범위 안에서 그분께서 얻으신 그 완전함을 얻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그분을 알기 위하여, 130.

나. 우리는 어떻게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가? 히 12:1~4; 갈 5:6[하단]; 빌 3:12~15; 4:13.

“우리의 위대한 교사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상세하게 말씀하신 완전함에 우리가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분의 요구에 응하여 그분처럼 높은 표준에 도달할 수 있는가? 그분은 우리의 의이시다. 그분은 인성 가운데서 우리 앞에 먼저 가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품성의 완전함을 이루어 놓으셨다. 우리는 사랑으로써 행하며 심령을 정결케 하는 그분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만 한다. 품성의 완전함이란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에 기초되었다. 우리가 우리 구주의 공로를 끊임없이 의존하면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행한다면 우리는 순결하고 더럽힘을 받지 않는 그분과 같이 될 것이다.” -그분을 알기 위하여, 130.

다. 우리는 어떻게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흠이 없게 될 수 있는가? 롬 5:18~20; 히 10:14.

“그리스도께서는 참회하는 자만을 용서하시며 그분께서 용서하시는 자는 먼저 회개에 이르게 하신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393, 394.

“죄인은 언제나 갈바리를 향하여 바라보아야 하며 어린아이의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며 주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주님의 자비를 믿어야 한다. ...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한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야말로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사랑인가! 율법의 강력한 주장들을 이해는 하면서도 무한히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손실인가!” -가려 뽑은 기별 1권, 384.

5. 우리의 품성이 그분의 품성과 같아짐

가.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히 해야 하는가? 벧후 1:4~11; 계 19:8.

“하나님께서서는 오늘날에도 아담에게 요구했던 완전한 순종 곧 흠이 없는 의, 주님의 안목으로 보실 때 결점이 없는 상태를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그분께 바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매일 생애에 실천케 하는 믿음이 없이는 이 일을 도저히 할 수 없다.” -가려 뽑은 기별 2권, 381.

“사단이 통치하는 한 우리에게서는 복종시켜야 할 자아가 있고 극복해야 할 얽매이게 하는 죄악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이 계속하는 한 멈추는 데가 없을 것이며, 우리가 도달해서 내가 완전히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이 없을 것이다. 성화란 필생의 순종의 결과이다.” -사도행적, 560, 561.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써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는 타락에서 벗어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죄, 모든 품성의 결함에서 깨끗해진다. 우리는 죄악적인 성향을 하나도 간직할 필요가 없다. ...

우리가 신성한 본성에 참여함에 따라, 잘못에 대한 유전적이고 배양된 경향은 품성에서 제거되고, 우리는 선을 위한 살아있는 힘이 된다. 거룩한 교사로부터 항상 배우고, 매일 그분의 본성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극복하는 데 하나님과 협력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사람도 일하여, 사람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하나이신 것처럼 하려는 것이다. ...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의로운 품성을 형성할 수 있다.” -성경주석[화이트주석] 7권, 943.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9:41

1. 바리새인들은 왜 혈통에 근거한 영생을 주장할 수 없었으며 오늘날에도 조상이나 DNA(유전자 정보)를 구원의 증표로 신뢰하는 사람은 없는가?
2. 아브라함의 참 자녀의 특징을 설명하라.
3.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성격과 관련하여 무엇을 선언하실 수 있었는가?
4. 모든 그리스도인 앞에는 어떤 목표가 있는가?
5.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발견될 수 있는가?

예수님과 눈먼 사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요 9:39)

참조할 연구교재: 교회증언, 3권, 570~575.

“옴의 역사는, 고통은 사단에 의해 가해진 것이며 자비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 역이용되었음을 보여 주었다.” -시대의 소망, 471.

첫째 날(일요일)

5월 25일

1. 오해의 소지

가. 제자들은 선천적으로 눈먼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했는가? 요 9:1, 2.

나. 유대인과 제자들은 모두 고통에 관해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단은 그것에서 어떻게 이익을 얻었는가? 요 9:34[상단].

“죄는 현세에서 형벌을 받는다고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믿고 있었다. 모든 고통은 고통당하는 본인이나 그의 부모의 어떤 잘못에 대한 형벌이라고 생각되어졌다.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범법에서 초래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진리는 곡해되어 왔었다. 죄와 죄의 모든 결과의 장본인인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질병과 죽음은 죄 때문에 당하는 독단적인 형벌로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였다. 그래서 큰 고통 혹은 큰 재난에 빠진 자들은 큰 죄인으로 간주되는 짐이 더 없어졌었다.

이와 같이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할 길이 준비되었다. ‘우리의 죄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분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사 53:4, 3)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외면했다.” -시대의 소망, 470, 471.

2.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 예수님의 어떤 대답이 고통과 죄에 관해 빛을 비췄는가? 요 9:3~5.

“죄와 고통의 관계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가졌던 신앙을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의 과오를 시정하시면서 인간의 고통의 원인을 설명하지 않고 그 결과가 어떠할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이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고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셨다.” -시대의 소망, 471.

나. 예수님께서서는 그 직후에 무엇을 하셨으며, 눈먼 사람은 어떻게 그분과 협력하였는가? 요 9:6, 7.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를 보내셨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시력이 회복되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서는 호기심으로 그분에게 던져진 질문에 일반적으로 대답하셨던 것처럼 이 제자들의 질문에도 실제적인 방법으로 대답하여 주셨다. 제자들은 누가 죄를 지었느냐 혹은 안 지었느냐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 아니라 소경의 눈을 밝게 하시는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도록 요청을 받았다. 진흙이나 소경이 씻기 위하여 갔던 못에 치료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었음은 분명하였다.” -시대의 소망, 471.

다. 회복된 사람의 이웃들의 다양한 반응을 설명하고, 그와 이웃들 사이에서 이어진 대화를 말해보라. 요 9:8~12.

“그 젊은이의 이웃들과 그가 전에 눈멀었던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고 말하였다. 그들은 의심스러운 듯이 그를 바라보았다. 왜냐하면 그의 눈이 열렸을 때 그의 용모가 변화되고 밝아져, 그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 질문은 연달아 일어났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다른 사람은 ‘그와 비슷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큰 은혜를 받은 그가 ‘내가 그로다’ 말함으로 그 의문은 해결되었다.” -시대의 소망, 471, 472.

3. 질문이 격화됨

가. 유대 지도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누구에게 데려갔는가? 그리고 왜 데려갔는가? 그는 어느 날에 고침을 받았는가? 요 9:13, 14.

나.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설명하라. 요 9:15, 16.

“바리새인들은 예수는 죄인이요 따라서 메시야가 아님을 입증하기를 원하였다. 바리새인들은 이 눈먼 사람을 고쳐 주신 분께서 바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안식일의 모든 의무를 아시는 분이심을 알지 못하였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준수하는 데 매우 열심이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바로 그날에 살인을 계획하고 있었다.” -시대의 소망, 472.

다. 바리새인들은 고침을 받은 사람에 대해 누구를 불러 증언하게 했는가? 요 9:18, 19.

“그들은[바리새인들은] 그의 부모를 불러서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하는 너희 아들이냐’고 물었다.

본인이 소경으로 있다가 시력을 회복하였다고 선언하였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들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들의 눈으로 본 증거를 부정하고자 하였다. 선입견은 아주 강력하였고 바리새인들의 의는 아주 왜곡된 것이었다.” -시대의 소망, 472.

라. 선입견을 갖는 것의 광범위한 악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경고를 받는가? 잠 18:13.

“그들이 듣는 것에다 그들 자신의 의미를 부여하여 이야기하는 사람이 표현하고자 노력한 것과 전혀 다른 생각을 고안해 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들음으로 문제를 그들이 희구하는 대로, 그들의 목적에 가장 알맞게 이해하고, 그렇게 소문을 퍼뜨린다.” -교회증언 5권, 695.

4. 위협에 직면함

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선천적으로 눈먼 사람의 부모를 위협하려고 했으며,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요 9:20, 21. 그들은 왜 회피적인 대답을 했는가? 요 9:22, 23.

“바리새인들에게 남아 있는 한 가지 희망은 그 사람의 부모를 위협하는 것이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성실한 체하면서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고 물었다. 부모들은 문제에 말려드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그 까닭은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 즉 삼십 일간 회당으로부터 내쫓김을 당하리라고 선언되었기 때문이다. 이 기간에 출교자의 가정에서는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할 수도 없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곡할 수도 없었다. 선고는 큰 재난으로 생각되었으며 이 선고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더욱 무거운 형벌이 따랐다. 그의 아들을 위해 행해진 위대한 일은 부모에게 확신을 주었지만 그들은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 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다’라고 대답하였다. 그와 같이 그들은 모든 책임을 아들에게 전가시켰다. 왜냐하면 그들은 감히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시대의 소망, 472, 473.

나. 위협에 의해 압박을 받을 때, 우리는 무엇을 명심해야 하는가? 시 118:6.

“굳건히 서고, 비겁한 사람으로 불리지 않기 위해 결코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라. 조롱이나 위협, 비웃음이 그대의 양심을 조금이라도 어기도록 유도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스도인 교육의 기초, 93.

“참된 그리스도인의 품성은 확고한 목적, 즉 세상이나 지옥에 의하여 형성되거나 정복될 수 없는 불요불굴의 결심으로 특징지어져야 한다. 세속적인 명예의 매력에 눈멀지 않고, 위협에 무관심하지 않고, 유혹에 냉정하지 않은 자는 모두 갑작스럽게 사단의 간계에 정복될 것이다.” -교회증언 4권, 543, 544.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반대하는 재림교도들로부터 격렬한 반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을 쌓던 자들처럼, 우리는 소문, 토의나 논쟁을 바라는 사실들, 겁을 주는 위협, 거짓의 유포, 사단이 선동한 어떠한 책략에 의해서도 우리의 사업에서 떠나거나 방해를 받지 말아야 한다.” -교회증언 3권, 574.

5. 반복된 역사

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직면하게 될 장면과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하라. 계 12:17; 행 4:18~20.

“투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사람들의 마음이 유린된 하나님의 율법을 향하여 돌아서면 사단은 분노하게 된다. 그 기별에 따르는 능력을 보고 그 기별을 반대하는 자들은 발광할 것이다. 성직자들은 그 빛이 그들의 교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하여 거의 초인간적 노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하여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한 논쟁을 진정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교회는 국가의 강한 세력에 호소하게 되고, 이 일을 통하여 로마교도와 신교도들은 연합하게 된다. 일요일을 강요하는 운동이 더욱 대담하고 결정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법률의 힘이 가해질 것이다. 그들은 벌금과 투옥으로 위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버리게 하는 유혹의 수단으로 훌륭한 지위가 주어지고 어떤 자들은 보수와 특권이 제공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단호한 대답은 일찍이 루터가 그들과 비슷한 상황에서 대답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라’는 말이 될 것이다. 법정에 소환된 사람들은 진리를 강력하게 변호할 것이며, 그 말을 듣는 자들 중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다른 방법으로는 진리를 알려 줄 수 없었던 무수한 사람에게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607.

나. 반대에 직면할 때 우리는 항상 무엇을 명심해야 하는가? 요 9:39; 행 4:33; 마 10:28.

“[사도들은] 위협으로 제지되거나 위협받을 수 없었다.” -사도행적, 48.

여섯째 날(금요일)

5월 30일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9:46

1. 유대인 지도자들은 병자와 고통 받는 사람을 어떻게 판단했는가?
2. 누가 그리고 무엇이 실제로 눈먼 사람을 고쳤는가?
3. 눈먼 사람의 이웃들은 왜 혼란스러워졌는가?
4. 그 젊은이는 고침을 받은 후 어떤 상황에 직면해야 했는가?
5. 그의 부모에게 닥쳤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인도 타밀 나두의 두 예배당을 위한 첫째 안식일 연금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기원전 2600년경에 고도로 도시화된 인더스 문명이 오늘날 인도로 알려진 아대륙에 이미 거주하고 있었다. 이곳의 주요 종교적 영향은 오랫동안 힌두교(79.8%)였고, 그 다음으로 이슬람교(14.2%), 기독교(2.3%), 시크교(1.7%) 등이 있다. 1920년대와 1950년대에 제칠일 재림교 개혁운동과 접촉했다는 보고가 있지만, 북인도가 제칠일 재림교 개혁운동 대총회 대표 회의에 공식적으로 처음 참석한 것은 1987년이였다.



인도 최남단 주인 타밀 나두는 산업과 농업 모두에서 강자로 여겨진다. 주님의 사업은 수년 동안 이곳에 자리 잡았지만, 이 주의 7,200만 명이 넘는 방대한 인구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더 광범위한 전도가 필요하다.

2001년 인도 인구 조사에 따르면, 파티비란파티 마을의 인구는 7,744명이였다. 평균 문맹률은 83%로, 국가 평균 59.5%보다 높다.

이곳의 주요 생계 수단은 커피이고, 그 다음으로 바나나, 오렌지, 카다멈, 후추, 기타 향신료가 있다. 팔라파티는 인구가 13,701명인 큰 마을이다.

1998년 이래, 페리야클람 출신의 한 전도사의 끊임없는 노력은 특히 이 두 지역의 교회 회원 수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었다. 다양한 어려움으로 인해 임대 주택에서 생존하기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파티비란파티와 팔라파티 마을의 형제들은 예배를 위한 그들만의 장소가 필요하다.

예언의 신은 특히 인도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안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전혀 듣지도 못한 사람들”이라고 언급한다. “그들은 이 지식을 알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들과 같은 자격을 가졌다.” -교육, 263 참조.

따라서 우리는 전 세계의 형제자매들에게 주님께서 이곳에서 빛날 수 있도록 등대를 짓는 데 관대한 지원을 제공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옹호하고 하나님의 계명의 무너진 곳을 수보(修補)하는 사업에 고통당하는 인간을 동정하는 사업을 병행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을 보여야 하며, 그분의 기념일을 높여야 한다.” -구호봉사, 32.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선물과 베푸는 자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파티비란파티와 팔라파티의 형제 자매들로부터

영적인 실명에 직면함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훼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훼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마 12:31, 32)

참조할 연구교재: 교회증언 2권, 489~497.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강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잘못을 시정하고 안전한 길로 저들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빛을 보내신다. 눈이 멀고 마음이 강박하여지는 것은 이 빛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 시대의 소망, 322.

첫째 날(일요일)

6월 1일

1. 재심문

가. 예수님께서 시력을 회복시켜 주신 청년을 두 번째로 불러들였을 때, 바리새인들은 그에게 무엇을 하도록 강요하려고 했는가? 요 9:24.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널리 선전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이적을 부인할 수 없었다. 소경되었던 사람은 기쁨과 감사로 찬만하였다. 그는 자연의 경이로운 사물을 바라보았으며, 하늘과 땅의 아름다움을 볼 때에 기쁨이 찬만하였다. 그는 거리낌없이 자기의 경험을 말했는데, 바리새인들은 또다시 아래와 같은 말로 그를 침묵시키려고 하였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사람이 너의 눈을 뜨게 하였다고 다시 말하지 말라 이 일을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 시대의 소망, 473.

나. 그 청년은 어떤 반박할 수 없는 주장을 제시했는가? 요 9:25.

2. 재심문(계속)

가. 시력이 회복된 청년에게 바리새인들은 다시 무엇을 물었고, 그들의 실제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요 9:26.

“그 때에 바리새인들은 다시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많은 말로 그를 혼란스럽게 하여 그로 하여금 스스로 속은 줄로 생각하도록 하려 하였다. 사단과 그의 악한 천사들은 바리새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힘과 교활함을 인간의 이론과 연합시켜서 그리스도의 감화를 소멸시키려고 하였다. 그들은 많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깊어져 가고 있는 확신을 둔하게 하였다.” -시대의 소망, 473.

나. 그 청년은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했는가? 그리고 누가 그의 곁에 서서 그에게 영감을 주었는가? 요 9:27.

“하나님의 천사들도 시력이 회복된 사람에게 힘을 주려고 그 장소에 와 있었다. 바리새인들은 나면서부터 소경이며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 아닌 다른 분과 상대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더불어 논쟁하고 있는 분을 알지 못하였다. 신령한 빛이 소경되었던 사람의 영혼의 밀실을 비추었다. 이 위선자들은 그가 믿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힘있고 예리한 대답을 통하여 자신이 옳무에 걸려들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여 주도록 도우셨다.” -시대의 소망, 473, 474.

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와 같은 도움을 확신할 수 있는가? 눅 12:11, 12.

“이제 여러분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펴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한다. 여러분은 이해력을 빨리 얻기를 원한다. 여러분은 진리의 참된 원리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 반대자들을 만날 때 자신의 힘으로 그들을 상대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대 곁에 서서 그대가 묻는 모든 질문에 답하도록 도울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사단은 그대의 반대자들 곁에 서서 그대가 건디기 힘든 말을 하도록 부추겨서 그대가 분별없이 말하도록 자극할 것이다. 그러나 그대의 대화는 사단이 그대의 말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라.” -리뷰 앤 헤럴드, 1887.5.3.

3. 고의로 눈먼 자 앞에서의 용기

가. 회복된 청년을 속일 수 없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그를 얽잡아보았는가? 그리고 그러한 무지는 역사 전반에 걸쳐 어떻게 드러났는가? 요 9:28, 29; 고전 1:18, 19, 26~28.

“하나님께서서는 각 시대에 그분의 교회를 위한 특별한 진리와 특별한 사업들을 가지고 계시다. 세상적으로 지혜 있고 유능한 사람들에게 숨겨진 진리가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에게 드러난다. 진리는 극기를 요구한다. 진리에는 싸워야 할 투쟁이 있고 이겨야 할 승리가 있다. 처음에는 진리의 옹호자가 극히 적다. 그들은 세상의 위인들과 세속화된 교회로부터 반대와 멸시를 받았다.” -실물교훈, 78.

“오늘날 종교계의 위대한 지도자들은 여러 세기 전에 진리의 씨를 심은 이들을 칭송하며 그들의 기념비를 세운다. 그러나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고상한 일을 거절하고 오히려 그같은 씨에서 돌아나 자라난 것들을 짓밟아 버리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요 9:29) 하는 옛말이 아직도 되풀이 되고 있다. 옛날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가 교회 당국자들에게서는 발견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너무도 무식하고 지혜가 부족한 남녀들에게서 발견되고 있다.” -실물교훈, 79.

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다른 정직한 신자들과 함께 이 젊은이의 진실한 간증에서 어떤 모범을 배울 수 있는가? 요 9:30~33; 행 4:19, 20.

“모든 겸손함과 은혜의 정신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주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자이시며 제철일은 주의 안식일임을 사람들 앞에 제시해야 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분의 깃발을 펴려이며, 그분의 말씀을 옹호하며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 권세자들이 이 사업을 못하게 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선포하지 못하게 막으면 그 때에는 사도들처럼 다음과 같이 말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행 4:19, 20).’ -교회증언 6권, 395.

4. 어두운 태도, 어두운 행동

가. 화가 난 바리새인들이 증거를 받아들여려 하지 않자, 그들은 자신의 치유에 대해 증언한 청년을 어떻게 대했는가? 요 9:34.

“그 사람은 심문자들을 그들 자신의 입장에서 대하였다. 그의 이론은 반박할 수 없는 것이었다. 바리새인들은 그의 날카롭고 단호한 말에 넋을 잃고 놀라서 침묵을 지켰다.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다. 마치 그와 접촉함으로써 오염될 것을 두려워하듯이 얼굴을 찌푸린 제사장들과 랍비들은 그들 주위에 흩어진 예복을 거두고 발에 먼지를 털며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고 그에게 독설을 퍼부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출교시켰다.” -시대의 소망, 474.

나. 이와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서는 청년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요 9:35~38.

“그는 구주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의 육체적인 시력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의 이해의 눈도 뜨였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영혼에게 계시 된 바 되었으며 그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영접하였다.” -시대의 소망, 475.

다. 반항적인 반역자들을 내쫓는 것과, 완고하고 눈먼 그리스도 거부자들이 사랑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영혼들을 파문하는 것의 큰 차이를 설명하라. 왕상 9:6~9; 마 12:31, 32; 시 11:3.

“[위클리프는]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정죄의 선고를 받지 않는 한 아무도 참으로 파문될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각 시대의 대쟁투, 84.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시대에 적합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모든 사람은 반대를 당하게 되어 있다. 루터의 시대에는 그 시대에 특별히 요긴한 현대 진리가 있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교회에도 현대 진리가 있다. ...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은 초기의 개혁자들보다 더 큰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진리와 오류,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대쟁투는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 격렬해질 것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143, 144.

5. 축복받은 자 vs 빛으로 심판받은 자

가.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사역의 결과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요 9:39.

“일단의 바리새인들이 가까이 모여 있었는데, 그 광경은 그의 말씀과 사업의 효과에 항상 나타난 대조를 예수님의 마음에 상기시켜 주었다. ... 그리스도께서는 눈먼 자를 보게 하고, 흑암 가운데 앉은 자들에게 광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으며 그가 막 행하신 그 기적은 바로 그의 사명에 대한 증거이었다. 강림하신 구주를 본 백성들은 세상이 일찍이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임재의 더욱 충만한 현현으로 은총을 받았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더욱 완전히 나타났다. 그러나 바로 이 계시 가운데서 심판은 사람들에게 내려지고 있었다. 그들의 품성은 시험을 받았고 그들의 운명은 결정되었다.” -시대의 소망, 475.

나.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요 9:40.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눈이 멀게 된 것에 대한 그들의 죄를 어떻게 밝히셨는가? 요 9:41.

“소경에게 육체적, 영적 시력을 모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현현은 바리새인들을 더욱 깊은 흑암에 남겨 두었다. ... 만일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진리를 볼 수 없게 하셨다면 그대들의 무식은 죄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본다고 하니’ 그대들은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으면서 시력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거절한다. 부족을 인식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무한한 도움을 가지고 오셨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부족을 고백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그리스도께 나오기를 거절하였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그들 자신들의 죄의 탓인 우매함에 빠졌다. 예수님께서서는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시대의 소망, 475.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9:50

1. 바리새인들은 이전에 눈먼 사람을 무엇으로 설득하려고 했는가?
2.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이용한 사람은 누구였는가?
3. 그 청년이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하도록 도운 사람은 누구였는가?
4. 그가 용감하고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5. 실제로 가장 나쁜 형태의 실명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요 10:11)

참조할 연구과제: 시대의 소망, 476~484.

“그리스도는 문이요 목자이시다. 그는 혼자 힘으로 들어가신다. 그는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양의 목자가 되셨다.” -시대의 소망, 478.

첫째 날(일요일)

6월 8일

1. 도둑과 목자

가. 예수님께서서는 도둑과 목자를 어떻게 구별하셨으며, 어떤 영적 교훈을 보여 주셨는가? 요 10:1, 2.

“그리스도께서는 이 예언들을 자신에게 적용시키시고[사 40:9~11에 나오는 메시아의 목회 사명을 말함; 시 23:1, 겔 34:23, 16, 25, 28] 자신의 품성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품성을 대조해 보이셨다. 바리새인들은 양 우리에서 바로 한 마리를 몰아내었는데 그 까닭은 그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담대히 증거 하였기 때문이었다. 바리새인들은 참 목자가 자신에게로 이끌고 있는 한 영혼을 잘라버렸다.

이 일로써 그들은 저들에게 위임된 일에 대하여 무지할 뿐만 아니라 양무리의 목자로서 신임을 받을 가치가 없음을 나타내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 앞에서 저들과 선한 목자를 대조하시고, 자신을 주의 양 무리의 참된 관리인으로 가리키셨다.” -시대의 소망, 477.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무력하고 의존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 -설교와 강연 1권, 248.

나. 양과 목자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요 10:3, 4. 양들은 낯선 사람 앞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요 10:5.

2. 양 우리로 가는 문

가. 예수님께서서는 바리새인들과의 대조를 어떻게 드러내셨는가? 요 10:7~10.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양 우리로 들어가는 문이 되신다. 초기 시대부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문을 통하여 들어갔다. 표상 가운데 나타난 바와 같이, 상징 가운데 예표된 바와 같이, 선지자들의 계시 가운데 나타난 바와 같이,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과 사람의 아들들을 위하여 행하신 이적 가운데서 드러난 바와 같이, 그들은 예수 안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요 1:29)을 보았다. 그들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양 우리 안으로 인도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의 믿음의 대상으로 다른 것을 제시해 왔다.

칭의와 하나님과의 화평을 획득하여 그의 양우리 안에 들어가려는 바램으로 사람들은 의식들과 제도들을 고안해 왔다. 그러나 유일의 문은 그리스도이시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어떤 사물을 개입시키는 자들, 어떤 다른 방법으로 양우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은 모두가 절도요 강도들이다.

바리새인들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넘어 들어갔으며, 참된 목자의 직무를 행하고 있지 않았다. 제사장들과 관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푸른 초장을 파괴하고 생명수 샘들을 더럽혔다. 영감의 말씀은 이 거짓 목자들을 정확하게 묘사하였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겔 34:4).’ -시대의 소망, 478.

나. 참된 목자는 품꾼과 어떻게 다른가? 요 10:11~13.

“설교할 수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체험으로 경건의 오묘함을 깨닫고 사람들의 긴급한 필요를 도울 수 있는 자 곧 예수님의 종 된 자기 지위의 중대함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지라고 말씀하신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사람이 필요하다.

목사는 교인들과 밀접히 교제하며, 여러 가지 많은 사람의 성격들을 익숙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심리 작용을 잘 연구하여, 청중의 사고 능력에 따라 적당하게 가르칠 것이다. 이와 같이 함으로 목사는 사람의 성격과 필요를 깊이 연구하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큰 사랑을 배우게 될 것이다.” -복음교역자, 191.

3. 전형적인 선한 목자

가. 예수님께서서는 선한 목자의 다른 어떤 특성을 나타내셨는가? 요 10:14, 15.

“이 세상 목자들이 자기 양을 아는 것처럼 거룩한 목자도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의 양 무리를 아신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겔 34:31; 사 43:1, 49:16).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그는 우리를 모두 이름대로 아신다. 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각 거주자의 이름을 아신다. 그는 때때로 그의 종들에게 그분의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어떤 도시, 어떤 거리, 또 그 어떤 집으로 가도록 지시하신다.

각 영혼은 마치 그가 구주께서 위하여 죽으신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예수에게 잘 알려져 있다. 각 사람의 고민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은 그의 귀에 들어간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을 그분께로 이끌기 위하여 오셨다. 그는 ‘나를 따르라’고 명하시며 그의 성령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그에게 나아가도록 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 끌려 가기를 거절한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누구인지 아신다. 예수님께서서는 또한 누가 그의 부르심을 즐겨 듣고 목자이신 당신의 돌보심 아래 오기를 원하는지 아신다. 예수님께서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고 말씀하신다. 그는 각 사람을 마치 이 지구 표면에 그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돌보신다.”
-시대의 소망, 479, 480.

나. 예수님께서서는 다른 어떤 양들에 대해 염려하셨는가? 요 10:16.

“예수님께서서는 거짓 목자들로 말미암아 잘못 인도된, 온 세상에 흩어진 영혼들을 생각하셨다. 그의 목장의 양으로 모아들이고자 한 자들이 이리들 가운데 흩어졌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서는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요 10:16)고 말씀하셨다.” -시대의 소망, 483.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교회에 보석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종교계를 싸잡아 비난해서는 안 되며 겸손과 사랑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야 한다. 사람들이 경건과 헌신을 보게 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보게 하면 그들은 진리로 이끌릴 것이다.” -성경주석[화이트주석]4권, 1184.

4. 신성한 능력

가.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어떤 신성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셨는가? 요 10:17, 18.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 말씀은 내 아버지께서 그대들을 매우 사랑하셨으므로 내가 그대를 구속하기 위하여 내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가 나를 더욱 사랑하신다는 뜻이다. 내가 내 생명을 드려 너희의 빛과 죄를 담당하여 너희의 대리자와 보증인이 됨으로 나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있다.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인간 가족의 일원으로 예수님께서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으나 하나님으로서는 세상을 위한 생명의 근원이셨다. 예수님께서서는 다가오는 죽음에 저항하실 수 있었으며 죽음의 지배아래 들어가는 것을 거절하실 수도 있었셨다. 그러나 그는 생명과 불멸을 드러내시기 위해 자원하여 그의 생명을 버리셨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세상의 죄를 지시고 죄의 저주를 견디시고 생명을 희생 제물로 바치셨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사 53:4~6).” -시대의 소망, 483, 484.

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이끄는 것은 무엇인가? 요 10:27; 요일 4:10, 19.

“형벌의 두려움이나 영원한 보상에 대한 희망이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제자들은 베들레헴의 말구유로부터 갈바리의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세상에서의 그의 순례 생활을 통하여 나타난 구주의 비할 데 없는 사랑을 보았다. 마음이 끌렸으며 영혼은 부드럽게 되고 또 정복되었다. 바라보는 자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일깨워진다. 그들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그를 따른다.” -시대의 소망, 480.

“우리가 지상에서의 그분의 생애와 우리를 위한 그분의 희생과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하시는 그분의 사업과 그분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거처를 생각할 때 다만 오,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여!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 -사도행적, 334.

5. 구원의 확신

가. 예수님께서서는 양들에게 어떤 확신을 주시는가? 요 10:28, 29.

“지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셔서 함께 우주의 보좌에 좌정하셨지만 그는 자비심 많은 성품을 조금도 잃지 않으셨다. 오늘도 똑같이 부드럽고 동정적인 마음이 괴로움을 당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열려 있다. 오늘도 못 박히신 손은 세상에 있는 그의 백성들을 더욱 많이 축복하시려고 펼쳐 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바친 영혼은 그가 보시기에 온 세계보다도 더 귀중하다. 한 사람을 구원하여 그의 왕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도 구주께서는 갈바리의 고통을 당하셨을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분께서 위하여 죽으신 사람은 단 하나도 결단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의 추종자들이 그를 떠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그는 그들을 꼭 붙잡으실 것이다.” -시대의 소망, 480~483.

나. 우리의 영적 안전과 구원의 확신은 무엇에 달려 있는가? 롬 8:31~39.

“그리스도께서 하늘 법정에서 그분의 교회, 곧 그분께서 보혈로 속전을 지불하신 이들을 위하여 탄원하고 계신다. 여러 세기나 여러 시대가 흐를지라도 그분의 속죄의 희생의 효력을 감소시킬 수 없다. 생명이나 사망이나 높음이나 깊음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매우 단단히 붙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매우 단단히 붙잡으셨기 때문이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 자신들의 노력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모든 약속의 배후에 계신 분에게 의존되어 있다. 우리가 그분을 붙잡은 것이 비록 약한 듯이 보일지라도 그분의 사랑은 만형의 사랑과 같다. 우리가 그분과의 연합을 유지하는 한 아무도 그분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없다.” -사도행적, 552, 553.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9:54

1. 목자와 도둑의 행동 차이를 설명하라.
2. 예수님께서서는 어떤 다른 상징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셨는가?
3. 참된 목자는 양에게 어떻게 행동하는가?
4. 양은 왜 낯선 사람이 아니라 목자를 따르는가?
5.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지 설명하라.

예수님과 나사로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시 116:15)

참조할 연구교재: 치료봉사, 219~224.

“그리스도에게는 최초부터 있고 빌려오지 않고 다른 곳에서 파생(派生)되지 않은 생명이 있다. … 그리스도의 신성은 믿는 자에게 영생에 대한 보증이다.” -시대의 소망, 530.

첫째 날(일요일)

6월 15일

1. 베다니의 가족

가. 예수님께서서는 베다니 마을에 어떤 제자들을 두셨는가? 요 11:5.

“그리스도께서는 베다니에 사는 한 가족과 두터운 애정으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그 가족 중의 한 사람을 위하여 가장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때때로 나사로의 가정에서 휴식을 얻으셨다. 구주께서는 집이 없으셨기 때문에 친구들과 제자들의 후한 대접에 의존하셨으며, 가끔 피로하고 인간의 우정이 갈급 될 때에는 분노한 바리새인들의 의심과 질투에서 벗어나 이 평화스러운 가족에게로 피하기를 즐기셨다. 이 곳에서 그는 진심어린 환영과 순결하고 거룩한 우정을 발견하셨다. 그의 말씀이 이해되고 소중히 간직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는 여기서는 단순하고도 완전히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말씀하실 수 있었다.” -시대의 소망, 524.

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유형의 집에 가장 좋은 축복을 가지고 계시는가? 잠 3:33[하단].

“우리 구주께서는 조용한 가정과 흥미를 가지고 듣는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인간의 상냥한 마음, 예의와 애정을 사모하셨다. 하늘에서 주신 교훈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그는 언제나 큰 축복을 나누어 주시려고 하셨다.” -시대의 소망, 524.

2. 나사로가 병들다

가. 나사로의 누이들은 오라비가 중병에 걸렸을 때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어떤 반응을 받았는가? 요 11:1~4.

“나사로가 갑자기 병에 걸렸다. 그리하여 그의 누이들은 구주께 사람을 보내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라는 말을 전하였다. 그들은 저희 오라비에게 무서운 병이 들린 것을 알았으나 그리스도께서 각종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음을 보이신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고민 가운데 빠진 저희를 예수님께서 동정하시리라고 믿었다. 그러므로 곧 오시라는 긴급한 요구를 하지 않고 다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라고 알리는 기별을 보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저희 기별에 즉시 응답하여 베다니에 도착하시자마자 그들에게로 오시리라고 믿었다.

그들은 근심스럽게 예수님에게서 오는 소식을 기다렸다. 저희 오라비가 아직 살아서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 저들은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자는 예수님을 모시고 돌아오지 못했다. 다만 그는 ‘이 병은 죽을병이 아니라’는 기별을 가져왔다. 그들은 나사로가 살게 되리라는 희망에 굳게 매달렸다. 그들은 거의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부드럽게 희망과 격려의 말을 하려고 애썼다.” -시대의 소망, 525, 526.

나. 그 다음 며칠 동안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동을 설명하라. 요 11:5~8.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그의 마음에서 그 소식을 깨끗이 잊으신 것처럼 보였다. 왜냐하면 이들 동안 나사로에 대하여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선구자인 침례 요한을 생각하였다. 제자들은 놀라운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요한을 옥에서 신음하게 하고 마침내 참혹한 죽음을 당하도록 허락하셨는지 의심하였었다.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도 왜 그리스도께서는 요한의 생명을 구원하지 않으셨을까? 이 질문을 바리새인들은 때때로 묻곤 했는데 그들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주장을 꺾는 반박할 수 없는 논증이라고 제시하였다. 구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시련과 손실과 핍박에 관하여 경고하셨었다. 시련이 닥칠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버리실 것인가? 제자들 중 어떤 이들은 저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였었다. 그들은 모두가 심각한 고민 가운데 있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실 양이면 왜 이들 동안이나 기다리셨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자신들을 위한 염려가 가장 먼저 저희의 마음에 떠올랐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행로에서 위험 밖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시대의 소망, 526, 527.

3. 실망이 희망으로 바뀔

가. 나사로의 병을 둘러싼 복잡한 사건들을 그리스도께서 처리하신 방식에서 우리는 시대를 초월한 어떤 기별을 얻을 수 있는가? 요 11:9, 10.

“그리스도와 함께 일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사자들과 그들의 기별을 멸시한 자들은 방향을 잃을 것이다. 그들은 어둠 속을 걸을 것이며,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런 자들은 마지막 날의 망상에 속기 쉽다. 그들의 마음은 사소한 관심사에 사로잡혀 있으며, 그리스도와 멍에를 메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축복받은 기회를 놓치게 된다.” - 그리스도인 교육 기초, 471.

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계시는 무엇이었는가? 하지만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요 11:11, 12.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려 가노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인가! 얼마나 동정심이 가득 찬 말씀인가! 제자들은 저희 주께서 예루살렘에 가심으로 입게 될 위험을 생각하여 베다니의 유가족을 거의 잊어버렸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렇지 않으셨다. 제자들은 책망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스도께서 좀 더 빨리 그 기별에 응하지 않으신 까닭에 제자들은 실망하였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지셨다고 그들이 생각했던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에 대한 그윽한 사랑을 갖고 계시지 않으셨다고 생각하도록 유혹을 받았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는 서둘러 기별자와 함께 돌아가셨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는 말씀은 제자들의 마음에 올바른 생각을 일깨웠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고통당하는 친구들을 잊지않고 계셨음을 확신하였다.” - 시대의 소망, 527.

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라. 요 11:13, 14.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믿는 자녀들에게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묘사하신다. 그들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인 바 되며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까지 그분 안에서 잠잘 것이다.” - 시대의 소망, 527.

4. 기다리고, 또 기다림

가.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서도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시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요 11:15.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하노니”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이상히 여기었다. 구주께서는 과연 고통받는 그의 친구들의 가정을 고의로 피하셨을까?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죽어가는 나사로는 분명히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들은 혼자만 있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광경을 다 보셨고 나사로가 죽은 후 그 남은 누이들은 그의 은혜로 격려함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강한 원수인 죽음과 더불어 투쟁하는 오빠를 보고 마음이 찢어지듯이 슬퍼하는 그들을 목격하셨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맛보셨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베다니에 있는 사랑하는 그들만을 생각하지는 않으셨다. 그는 제자들의 교육도 생각하셔야 하였다. 제자들은 아버지의 축복이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도록 그의 대리자로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을 것이었다. 제자들을 위하여 그는 나사로를 죽도록 허락하셨다. 만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병에서 회복시키셨더라면 예수님의 신적인 신분을 가장 명확하게 증거하는 그 이적은 행하실 수 없었을 것이다.” -시대의 소망, 528.

나. 위대한 치유자가 그분의 친구인 나사로가 그렇게 병들어 실제로 죽는 것을 허락하신 방식으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고전 15:17~19; 시 18:28.

“[그리스도의] 사역은 질병에 대한 그분의 권능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분은 치유하는 모든 사역을 그분의 사랑과 자비의 신성한 원리를 마음에 심어주는 기회로 삼으셨다.” -건강에 대한 권면, 249.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 병실에 계셨더라면 사단이 그를 이길 힘이 없었을 것이므로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생명의 시여자 앞에서 죽음은 그의 창을 나사로에게 던지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고로 그리스도께서는 멀리 떠나 계셨다. 원수가 그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은 그가 정복한 원수로부터 나사로를 다시 찾아오시기 위함이었다. 그는 나사로가 죽음의 지배 아래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으며, 고통받는 누이들은 저희 오빠가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오라비의 죽은 얼굴을 바라볼 때에 구주에 대한 믿음이 격렬하게 시험 받을 것을 아셨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겪는 투쟁으로 말미암아 저희 믿음이 더욱 큰 능력으로 빛나게 될 것을 아셨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당한 모든 슬픔의 고통을 경험하셨다. 예수님께서 지체하는 것은 그들을 덜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과 나사로와 자신과 제자들을 위하여 승리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다.” -시대의 소망, 528.

5.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님

가. 어떻게 일어나든 하나님의 충실한 종들의 죽음에 대해 우리는 항상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가? 시 116:15. 예를 들어보라.

“엘리사는 불병거를 타고 승천한 그의 주인을 따를 특권을 받지 못했다.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오래 끄는 병이 임하도록 허락하셨다. 인간의 약점과 고통이 있던 긴 시간 동안에도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았고 항상 자기의 주위에서 위로와 평화를 주시는 하늘 사자들을 바라보았다. … 그의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변함없는 신뢰심으로 성숙되었다. 그리하여 죽음이 이를 때에 그의 수고를 마치고 기꺼이 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선지자와 왕, 263, 264.

나.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베다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그분이 오셨을 때 거기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요 11:17~19.

“그리스도께서 나사로에게 오는 것을 늦추신 것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분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심으로써 완고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참으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또 다른 증거를 주시기 위해 늦추셨다. 그분은 이스라엘 집의 가난하고 방황하는 양인 백성의 모든 희망을 포기하는 것을 싫어하셨다. 그들의 회개하지 않음 때문에 그분의 마음은 아팠다. 그분은 자비로우셔서 자신이 회복자이며 생명과 불멸을 빛으로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또 다른 증거를 그들에게 주시기로 의도하셨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오해할 수 없는 증거가 되어야 했다. 이것이 그분이 베다니에 가는 것을 늦추신 이유였다. 나사로를 살리신 이 최고의 기적은 그분의 사역과 신성에 대한 그분의 주장에 하나님의 인을 찍기 위한 것이었다.” -시대의 소망, 529.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9:56

1. 나사로의 가족은 누구였는가?
2. 예수님께서 친구들의 요청에 즉시 응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3.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태도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4.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어떻게 여겨야 하는가?
5.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목적으로 나사로가 죽도록 허락하셨는가?

부활과 생명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요 11:25)

참조할 연구교재: 가려 뽑은 기별 1권, 296~300.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마치 순간의 일처럼 말씀하셨다. …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란 잠자는 것이며 한 순간의 침묵과 어두움에 불과한 것이다.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어 있다.” -시대의 소망, 787.

첫째 날(일요일)

6월 22일

1. 베다니의 예수님

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는 무엇을 했으며 어떤 확신을 나타냈는가? 요 11:20~22.

“통곡하는 친구들 가운데는 가족의 친척들과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 그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가장 큰 원수들도 있었다. 그리스도는 그들의 의도를 아셨으므로 즉시 자신을 알리지는 않으셨다. 매우 조용하게 기별이 전하여졌으므로 방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였다. …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서둘렀으나 그의 마음은 엇갈리는 감정들 때문에 흔들리었다. 예수님의 얼굴 표정에서 그는 항상 나타내시던 똑같은 친절과 사랑을 읽을 수 있었다. 예수님께 대한 마르다의 신뢰심은 깨어지지 않았으나 그는 예수님께서 또한 사랑하셨던 자기의 극진히 사랑하던 오빠를 생각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일찍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가슴에 깊은 비통함이 있었으나 이제라도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리라는 희망으로 마르다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고 말하였다. 애곡자들 때문에 떠들썩한 가운데 이 누이들은 여러 번 이 말을 되풀이하였다.

인간적인 동정과 천래의 동정으로 예수님께서서는 슬픔에 가득 차고 근심으로 여윈 마르다의 얼굴을 바라보셨다. 마르다는 지난 일을 되풀이하여 이야기하려 하지 않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란 비애에 가득 찬 말로 모든것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사랑의 얼굴을 바라보며 덧붙여 말하기를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라고 하였다.” -시대의 소망, 529, 530.

2. 희망에 대한 궁극적 약속

가. 예수님께서서는 마르다에게 무엇을 확신시키셨는가? 요 11:23. 그녀는 이 말로 무엇을 이해했는가? 요 11:24.

“예수님께서서는 마르다의 믿음을 격려하시면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대답은 즉시 변화된다는 희망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르다의 생각을 그의 오라비의 현재의 부활을 넘어서 의인의 부활로 이끄셨다. 이 일로 그는 마르다가 나사로의 부활을 통하여 모든 죽은 의인의 부활에 대한 보증과 구주의 능력이 이를 이루시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셨다.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고 대답하였다.” -시대의 소망, 530.

나. 예수님께서서는 어떤 말로 마르다의 확신을 인정하셨는가? 요 11:25; 요일 5:12.

“마르다의 신앙에 참된 방향을 주시려고 더욱 노력하시면서, 예수님께서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선언하셨다. 그리스도에게는 최초부터 있고 빌려오지 않고 다른 곳에서 파생(派生)되지 않은 생명이 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요일 5:12)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믿는 자에게 영생에 대한 보증이다.” -시대의 소망, 530.

다. 무덤 너머에서 우리의 소망의 기초가 되는 약속은 무엇이며, 마르다의 확신은 그리스도의 기적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요 5:26; 11:26, 27.

“이 곳에서 그리스도는 그분의 재림의 때를 내다보신다. 그때 죽은 의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겠고 살아남은 의인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감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 곧 행하시려는 이적은 죽은 모든 의인의 부활을 대표한 것이다. 그의 말씀과 행하신 일로써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부활의 창시자이심을 선언하셨다. 미구에 몸소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는 사망의 열쇠를 잡으시고 무덤의 정복자로 서서서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그의 권리와 능력을 주장하실 분이였다.” -시대의 소망, 530.

3. 예수님께서 우심

가. 슬픔에 잠긴 마리아의 행동과 말을 설명하라. 요 11:28~32.

나.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몇몇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하셨으며, 왜 하셨는가? 요 11:33~35.

“예수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예수님께서서는 거기 모인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읽으셨다. 그는 슬픔을 표명하는 것처럼 행하던 많은 사람들의 행동이 가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셨다. 그는 지금 짐짓 슬픔을 나타내고 있는 무리 중에 얼마는 멀지 않아 능력 있는 이적을 행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림을 받을 자도 죽일 계획을 세울 것을 아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꾸며낸 슬픔의 옷을 그들에게 벗길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는 의분을 참으셨다. 모두가 사실인 말씀을 그는 하실 수 있었지만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 그분을 참으로 믿은 사랑하는 사람이 슬퍼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있기 때문이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고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에 그들은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함께 무덤으로 나아갔다. 슬픈 장면들이었다. 크게 사랑을 받아온 나사로의 친구였던 이들이 그의 누이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데 그의 누이들은 그를 위하여 가슴이 찢어지듯이 울었다. 이 인간의 고통, 그리고 이 세상의 구주께서 곁에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피로움을 당한 친구들이 죽은 자에 대하여 슬퍼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는 인성을 쓰셨으며 따라서 인간의 슬픔에 감응되셨다. 그의 부드럽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언제나 고통받는 자에게 동정을 느꼈다. 그는 우는 자와 같이 우시고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하신다.” -시대의 소망, 533.

다. 예수님의 삶에서 이 순간이 우리에게 어떻게 본보기가 될 수 있는가? 롬 12:15.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므로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공명하신 그리스도의 훌륭한 모본, 곧 측량할 수 없는 친절은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품성에 깊은 영향을 주어야 한다. 그들은 친절한 말과 행동으로 피곤한 발길을 편안하게 해 줄 길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게 될 것이다.” -치료봉사, 157, 158.

4.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가. 예수님께서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가? 요 11:39[상단]. 마르다는 어떻게 반응했고 예수님께서서는 그녀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요 11:39[하단].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하실 때에 사단은 어떤 사람들을 움직여서 반대하게 한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가능한 한 내가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여라. 그러나 마르다의 적극적이며 지기 싫어하는 성질은 그 주장을 고집하였다. 마르다는 썩고 있는 시체를 보이고 싶지 않았다. 인간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빨리 깨닫지 못한다. 따라서 마르다의 신앙은 그분의 약속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리스도는 마르다를 책망하셨지만 그러나 그분의 말씀은 아주 부드러웠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그대는 나의 권능을 의심하는가? 왜 나의 요구를 반대하여 이론을 붙이는가? 그대는 내 말을 이미 들었다. 만일 그대가 믿으면 그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자연의 이치대로의 불가능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 회의와 불신은 겸손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참된 겸손이며 참된 자기 포기이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스도께서는 돌을 명하여 옮겨지게 할 수 있었으며 돌은 그리스도의 음성에 순종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곁에 가까이 있는 천사들을 명하여 이 일을 하실 수 있었다. 그의 명령을 듣고 보이지 않는 손이 돌을 옮겨 놓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돌은 인간의 손으로 옮겨져야만 하였다. 이와 같이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이 신성과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셨다.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하여 신성의 능력이 소집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도움없이 일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 주어진 능력과 역량을 사용할 때에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와 협력하신다.” -시대의 소망, 535.

나. 오늘날 우리의 불신을 부드럽게 책망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무엇인가? 요 11:40.

“많은 사람이 살아 있는 믿음이 없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보지 못하는 이유이다. 그들의 약함은 불신의 결과이다. … 그들은 계획하고 고안하지만 기도는 거의 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지 않는다. 그들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단지 순간의 충동일 뿐이다. 그들은 자신의 필요나 하나님께서 기꺼이 주시려는 마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그들의 요청을 계속 지키지 않는다.” -실물교훈, 145, 146.

5.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키심

가. 예수님께서서는 무덤 옆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셨는가? 요 11:41, 42.

“명령은 순종되었다. 돌은 옮겨졌다. 모든 일은 다 공개적으로 그리고 신중하게 이루어졌다. 모두들 어떤 속임수도 행해지지 않음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바위로 된 무덤 가운데 나사로의 시체가 놓여 있었는데 죽음으로 차디차고 움직이지 않았다. 애곡자들의 울음소리가 그치었다. 놀라움과 기대로 찬 무리들은 무덤 주위에 서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주목하고 있었다. ...

이 곳에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그의 아버지라고 주장하시면서 완전한 확신 가운데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신다.” -시대의 소망, 535, 536.

나. 예수님께서서는 어떤 말씀으로 나사로를 부활시키셨는가? 요 11:43. 즉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요 11:44.

“맑고 드높은 예수님의 음성이 죽은 자의 귀를 울렸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신성은 인성을 통하여 번쩍거렸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난 얼굴에서 백성들은 예수님의 능력의 확실함을 알 수 있었다. 모든 눈은 동굴의 입구로 쏠렸고 모든 귀는 가장 작은 소리라도 들으려고 기울여졌다. 열렬하고도 근심스러운 호기심으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리스도의 주장을 실증하던지 혹은 희망을 영원히 잃게 할 증거, 즉 그의 신성에 대한 한 시험의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고요한 무덤 속에서 한 움직임이 일어났고 죽었던 자가 무덤의 문 곁에 섰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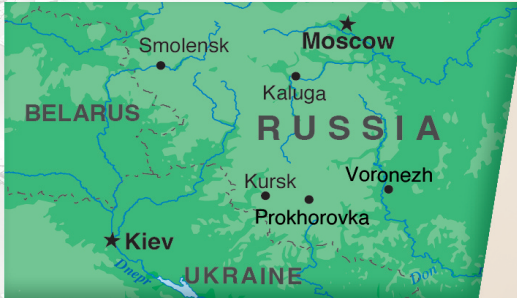
인간은 인간을 위하여 일해야 한다. 나사로는 자유롭게 되어 병으로 쇠약해진 사람처럼 연약하고 비틀거리는 다리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혈기 왕성한 건강한 사람의 활력으로 무리들 앞에 섰다. 그의 눈은 총명과 구주에 대한 사랑으로 빛났다.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였다.” -시대의 소망, 536.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9:57

1.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가졌던 확신을 설명하라.
2. 예수님께서서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모든 신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3. 예수님께서서는 왜 우셨는가?
4. 이 기적에서 인간은 어떻게 신성과 협력했는가?
5. 예수님의 부름에 대한 나사로의 행동을 설명하라.

첫째 안식일 연금



4월 5일 안식일

러시아 프로호로프카 교회의 재건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에서 성장하는
일에 참여하세요! (4쪽 참조)



5월 3일 안식일

세계 선교

아직 가야 할 새로운 곳이 너무 많으
니, 이 신성한 과제를 마무리하도록
지원하세요! (25쪽 참조)



6월 7일 안식일

인도 타밀 나두의 두 예배당

남인도에는 복음이 절실히 필요합니
다. 지금이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
입니다! (51쪽 참조)